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이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굳게 믿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깨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5)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50호 2013년 9월 1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폭력의 그림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간다!

### 바나리서치, 9.11테러 12주년 맞아 미국인 정서적 영적 영향 설문조사

미국인들에게 9.11테러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는 악몽이다. 4대의 민간 비행기가 납치됐었고,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는 등, 소위 "세계가 하루아침에 변한 날"로 기억되는 그 날은 12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되고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심리학적 영향들은 다른 테러들이 잇달을 때마다 즉, 버지니아대학에서 반자동 소총이 발사되고 심야의 극장에서 총성이 오가며 초등학교에서 순진난만한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갈 때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결승점에서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자극으로 남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9.11테러가 마치 트라우마처럼 미국인들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폭력의 영향으로 계속 그림자처럼 드러져 있다고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밝혔다(The Emotional And Spiritual Aftermath of 9/11). 다시 말해서 9.11 테러가 어느 정도까지 미국 문화와 함께 미국인들의 의식을 바꿔놓고 있는지, 그리고 눈앞에서 전개되는 폭력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오고 있는지를 바나리서치는 밝혀주고 있다.

9.11테러라는 미증유적 폭력을 경험한 미국인들에게 또 다른 테러는 곧바로 "테러리즘 방지"라는 우선순위를 떠오르게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인 중 75%는 "테러리즘 방지"가 바로 가족의 보호, 이민, 헬스케어, 실업 그리고 교육이라는 기본 테두리보다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고 있을 정도이다. 9.11테러 발생 후 12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공통분모인 셈이다. 항상 미국인들에게 우선순위에 있던 가족이나 가정의 보호보다도 2%나 더 많은 40%로, 테러리즘 방지가 미국인들에게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우선순위로까지 부상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9.11 테러 발생시, 십대 사춘기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밀레니엄 세대(18-29)'가 다른 어떠한 사회적 관심들보다도 테러리즘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이나 가정보다도 외부에서 다가오는 폭력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빚어내는 악한 영향이 주는 파괴력을 밀레니엄 세대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천"일 경우에는 가정을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테러리즘 예방을 위해 국가의 안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인지 묻는 설문에서, 41% 대 35%로, 미국인들의 고전적 가치인 가정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불청객처럼 찾아온 9.11테러를 12년이 지난 현재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슬픔(47%)과



9.11테러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 주신 힘으로 그 폭력을 극복해가고 있다.

분노(40%)가 바로 미국인들이 처음 테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다. 여기에 두려움(36%), 혼란(28%) 그리고 불안(18%)까지 더해진다. 12년이 지난 지금, 분노의 감정은 조금은 사그라졌지만(31%), 슬픔이 빚어내는 감정은 오히려 더 높아졌

을 느끼고 있을 때, 28%만이 동일한 정서상의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테러는 이러한 미국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

다(50%).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크리스천들일 경우에도 분노와 슬픔은 9.11 테러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감정이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슬픔은 51% 대 44%, 분노는 43% 대 38%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스펙트럼으로 볼 때 신앙이 없는 성인들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은 미 평균치수에 부족할 정도로 싸늘하다. 40%의 미국인들이 분노를 느끼는 반면, 27%만이 분노했고, 38%의 미국인들이 혼란과 혼동을 느끼고 있을 때, 28%만이 동일한 정서상의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테러는 이러한 미국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

<3면으로 계속>

## 의사소통은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소

### 리더십저널, 빌 도나휴 목사의 소그룹 4개 원리 소개

원활한 의사소통은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이다. 이것은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그룹이 침체되거나 피상적인 모임이 되고 말 것이다. 건강하고 성장하는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그룹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빌 도나휴 목사가 제시하는 4가지 의사소통의 경로는 건강한 소그룹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각자가 처한 소그룹 안의 의사소통에 대해 점검해 보자.

### 성경 연구 묵상 시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 간구 기도, 찬양, 성경봉독, 예배, 헌신으로 하나님께 응답

#### 1. 하나님께서 그룹에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소그룹 모임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이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성경에서 깨닫게 하고 도전하실 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과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룹 혹은 그 모임의 목적을 성령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서 귀 기울이기 바란다.

#### 2. 그룹이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에는 기도, 찬양, 성경봉독, 예배, 하나님께 조용히 마음을 표현하며 헌신하는 것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반응하는 소그룹이 돼야 할 것이다.

#### 3. 구성원이 구성원에게

약점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고 진실한 의사소통이 오갈 때, 그 그룹은 구성원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매체가 된다. 구성원끼리 감정, 격려의 말, 또는 서로 간의 상처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그룹은 성장할 수 있다.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진리를 말하는 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사랑과 배려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면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그룹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그룹이 세상에

잃어버린바 됐으며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룹 단위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말로 또는 행동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와 세상에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결국 생명력 있고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4가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소그룹은 무너지기가 쉽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소그룹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과 세상 모두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다.



2면

하나님 형상 되찾는 구원의 도구로



7면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라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



13면

방지일 칼럼  
"본대로 들은 대로"



16면

특별기고: 동유럽선교사대회를 참석하고  
정인수 목사(아를란타연합장로교회)

#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 제공하는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교회를 이끄는 참신한 리더십을 지닌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리더십과 위기관리



김한요 목사 (엘바인 베델한국교회)  
리더십과 멘토링



노진준 목사 (한길교회)  
리더십과 영적권위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리더십의 핵심가치

일시 10월 15일(화) 10:00 a.m. - 4:00 p.m.

장소 Garden Suite Hotel California Ro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Free Self Parking)

- 등록비: \$30 (점심식사 포함)
- 등록문의: Tel. (626)857-2200, email: aher@apu.edu
- 10월 8일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등록해주세요.



AZUSA PACIFIC  
UNIVERSITY



# 시론

## 임금을 친구로 얻는 사람



양준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잠22:11)는 말씀에는 마음, 말, 관계의 세 요소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다.

임금과 친구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특별한 자량이요 큰 재산이다. 누구누구가 내 친구라고 유명인을 들먹이며 자랑하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나라의 임금이, 국가의 대통령이 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거리인가? 어느 집을 방문했더니 전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다. 같이 갔던 사람에게 이 집 주인이 클린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냐고 물었더니, 선거캠페인 디너에 참석하여 기부금을 내고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 온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을 잡은 임금조차도 스스로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곧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덕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수단이나 미사여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덕스러운 말에 있음을 새롭게 깨닫는다.

말 따로, 마음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 이유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심정 때문일 것이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에게 진심에서가 아닌 형식적으로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도 “기도해보겠습니다” 또는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는 기도하는 일은 까맣게 잊고 지내면서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쉽게 기도를 들먹이는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던 이러한 언어생활부터 새로워져야 함을 깨닫는다. 별 약의가 없는 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진실하지 못하던 결코 진실하고 덕스러운 인격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호칭 중 가장 영광스럽고 부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다.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사는 것처럼 자랑스럽고 신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세상에 출세한 사람, 권력 잡은 사람, 인기 높은 유명인이 자신의 친구라고 으시대는 사람들 어느 누구하나 부러울 것 없지 않겠는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말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버금가는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에 다달아서 그의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요, 아브라함 역시 은혜로 그러한 호칭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그 가능성을 본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꾸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자, 순수하고 성결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덕스러운 말을 나누는 자,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 진실함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불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

# 하나님 형상 되찾는 구원의 도구로

## CT, 실리콘밸리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신앙과 테크놀로지 접목 소개 (2)

실리콘밸리에는 이야깃거리가 무궁무진하다. 팽질하고 부수고 세우고 고치는 엔지니어들의 땅, 실리콘밸리 이야기는 이미 한 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샌프란시스코만을 끼고 있는 이 작은 반도만큼 두뇌들이, 특히 물리학과 수학을 인간의 필요와 욕망과 접합시키는 능력을 지닌 공학천재들이 넘쳐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쉽게 만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곳보다 훨씬 더 살만하게 다가온다.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리콘밸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꿈이 복음이 빛어낸 꿈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고민과 노력을 소개해주고 있다(Here's to the Misfits: How Silicon Valley entrepreneurs are taking a leap of faith to create technology that makes you more human). 편집이사 앤디 클라우치가 쓴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걸쳐 게재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평일 근무시간을 할애하는 상사를 비크리 스텐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친구들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일하면 프로소프트 선수처럼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근거해 모든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알립니다. 이들도 우리의 사명과 문화가 좋아서 임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기업은 아니죠.” 세이버는 말한다.

“기독교 기업이란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인만을 위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니어 파트너로 모신 세계적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는 강력한 도구라



기업의 창업자들을 소개받고 만났다. 하지만 이 세 벤처기업에서 특이하고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테크놀로지가 빛어낸 문제점들, 주로 앉아서 일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는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일상을 더 나은 테크놀로지로 해결하려고 애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먼저 모든 단말기를 다 깨버리고 이웃을 찾아가 그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라는 쪽이다. 이들은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고 생활관리 앱을 확인하고 미끈하게 생긴 만보계로 활동량을 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고 말한다. 나 역시 애플워치가 가상세계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열정을 쏟아낼 때 처음에는 의아했다. “왜 이런 앱을 만들려는 것일까?”

그러나 덜 냉소적이면서, 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고 문화가 바뀌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더 많은 문화, 문화 산물, 제도를 창조하여 기성 문화의 결함을 드러낼 때 문화는 바뀐다.

이 선두주자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고,

## 테크놀로지는 능력을 줄 뿐 아니라 연약함 노출 생활 관리와 더불어 인격과 영성훈련 추구 도와

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빈곤이나 질병, 환경 파괴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미스피트는 우리의 모든 활동량을 기록하는 기기를 만들고 있다. 피그는 생활 관리와 더불어 인격과 영성훈련을 추구하도록 돕고 있다. 케빈 애들러는 “포르터 파티”를 열라고 추천한다.

인디스(inthis.co)의 창립자인 애들러는 자연재해와 집단적 정신의상(collective traumas)이 공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 후 테크놀로지의 심오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테크놀로지의 연결성이 오히려 소외감을 심화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계를 떠나 테크놀로지 세계에 입문했다.

애들러가 동료인 케이틀린 비티에게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평균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단 2

년 만에 약 150-300명의 친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은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 잘 연결돼 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오히려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애들러의 목표는 사람들을 가상이 아닌 실제 공동체로 다시 연결해 이들이 경험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가 영위하는 사회생활(소셜라이프) 중 90%는 그 어떤 소셜네트워크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실제 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우리는 구글 캘린더 같은 여러 소스에서 우리가 경험한 기록들을 끌어 모아, 그 경험을 함께 했던 다른 이들을 찾아 보게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 함께한 이들이 쌓일

것이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무척 큰 비전이지만 인디스는 포르터 웹 앱을 통해 소박하게 출발하고 있다. 애들러는 익명성 속에서 정신 없이 돌아가는 도시생활을 깨뜨리고자 자신부터 포르터 파티를 열기 시작했다. 이 저녁식사가 깊어지면 그는 당혹스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결심한 것 중에 끝까지 지키지 않아 흐지부지된 게 있습니까?”

“40-45명 정도가 모여 눈물을 펄펄 쏟기도 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털어놓는 모임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어울리면서 제 신념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하는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라고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일은 멋진 일입니다.”

미스피트 웨어러블스, 피그, 인디스는 각각 매우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 나는 전혀 다른 경로로 이들

시대적 흐름을 가로막고 “멈춰!”라고 소리만 질러서는 도저히 창조해 낼 수 없는 새로운 것, 나름의 독특한 가능성들을 지닌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과 잠깐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냉소주의는 사그라질 것이다. 인류의 풍성한 삶을 위한 그들의 비전의 깊이와 그것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고마움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벤처회사들 모두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인터뷰한 사람들 모두 성공한 창업자들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두었는지 몰라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일확천금을 안겨주지는 못했다. “맨 처음 설립했던 두 벤처회사는 모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요. 하지만 둘 다 굉장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세이버가 내게 했던 말이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세계 교육선교를 위한 국제교육협력컨퍼런스

## 9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America Education System, Research Field Trips
미국 교육시스템 연구, 현장견학 및 국제교육협력방안
장소: MIDWEST UNIVERSITY

**교육선교하시는분들을 초청 합니다**

세계 교육선교를 위한 국제교육협력기구(IEC)에서는 미국 교육시스템 연구 및 미국 교육 현장 견학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과 현장 경험을 갖게하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교장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는 국제적인 교육협력 컨퍼런스에 전세계 K-12 교장, 이사장, 총장들과 교육선교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을 초청 합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변화 시키는 데 기여할 세미나**

**미국 교육시스템 연구와 미래교육 트렌드**  
제 1 차 기간: 2013 년 12 월 2-5 일까지( 특강과 현장방문)  
장사: 미국 명문학교 교장 및 교사, 학생지도전문가 상담 전문가  
미래교육의 변화, 미국 교육 커리큘럼, 미국 학교시스템 전문 교수진  
장소: Midwest University (ST. LOUIS, MO)

제 2 차 2013 년 12 월 6-8 일  
장소: 칸쿤 멕시코, Cancun, Mexico

참가자격: 전. 세계 K-12 교장, 이사장, 총장, 교육전문가, 학교가 추천하는 이사, 세계 교육선교에 관심있는 분.

**선교지학교에 미국인 교사 단, 장기 파송 미국 공립, 사립학교와 자매결연 교환학생 교류 학교운영관리 프로그램 협력**

Options: Apply 1- Full Conference (Dec 2-8, 2013)  
Apply 2- Part I, Conference Only (Dec 2-5, 2013)

Registration : info@IECinternational.org  
Part 1, Conference Registration fee \$100.00

Early Register : Full Conference Only  
Sep 30, 2013, (\$ 100.00 Off) 9월 30일 까지 등록하는 분

Options: Part I Conference Only St. Louis, U.S  
Conference Room & Board, Study Tour (4 night 5 day) \$ 950.00  
Part II, Cancun, Mexico (3 night 4 day) \$ 695.00  
Part I & Part II Conference Room & Board, study Tour Grand Total \$1645.00. @ Airfare not included 항공료 별도

일정안내  
12월 2일 - 미국 St. Louis 도착  
12월 2-5일- 미국교육연구및 현장견학  
12월 6일 - St. Louis -Cancun, Mexico 이동  
12월 7-8일-멕시코 현지학교, 마야문명지 견학  
12월 9일- 칸쿤에서 각자 출발

미국교육 커리큘럼, 교육행정, 학생지도 및 상담 시스템, 첨단 교육기자재, 교육현장방문, 교장 리더십, 미래교육 트렌드, 30 여국 교장들과 포럼, 각국의 교육교류와 협력방안 모색, 자매결연을 통한 교환교사, 교환학생 교류 참가 교장에게는 교장 리더십 수료증 수여, 통역지원,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한국어

IEC 국제교육협력기구

- 지구촌 인재 발굴과 양성에 대한 국제적교육협력 네트워크
- 잠재력을 응용화, 전문화하는 교육, 인성, 지성, 영성, 리더십을 위한 균형있는 교육.
- 시대의 상황과 변화에 대한 통찰력, 성취와 감사를 균형있게 실천하는 리더십교육

자세한 질문은 이메일 혹은 전화로 Register: info@IECinternational.org  
070-8690-2662, 미국 636-639-9221  
Korea office : 02-3672-4516  
070-8834-4516

**주최: 국제교육협력기구 IEC, 공동주최: WCSN 세계크리스찬스쿨네트워크 후원: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 대안학교연합회**

# 폭력의 그림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간다.

(1면에서 계속)

43%의 다양한 종교적 믿음을 가진 미국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닥친 혼란과 두려움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9.11테러가 빚어낸 국가적 위기 앞에서 심지어는 20%의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존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만큼 9.11테러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는 엄청난 재난이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 분토를 공격한 첫 번째 테러였다. 그러나

9.11보다 규모가 작아졌는지 아니면 9.11테러로 인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탓인지, 응답자들이 느낀 주요 감정은 슬픔(70%)과 분노(54%)였다. 이에 비해 9.11 공격은 보스턴 사건보다 공포와 불안과 혼돈을 더 많이 야기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세대간 차이를 보였는데, 젊은 층에 비해 나이가 든 미국인일수록 분노와 슬픔을 더 많이 느꼈다(78%, 전국평균은 54%).

신앙은 비극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거듭난 기독교인의 89%는 테러 사건이 일어난

동안 신앙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말한다(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의 48%). 게다가 2/3는 신앙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의 1/3).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은 대답을 하는 비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더 적다(신앙이 위로를 준다-58%, 이해를 돕는다-41%).

결론으로, 동 리서치의 클린트 젠킨 부소장(박사학위 주재 "테러리즘에 대한 공공의 태도 연구"에 의하면)은 "이번 설문조사는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보여준다. 9.11과 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 세상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중요하다. 사건 이후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가공할 폭력 사

건 앞에서 누구나 분노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런데 구세대 쪽이 더 많이 분노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극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설문 조사결과를 통해 "테러리스트의 탈레마"를 소개해준다. 즉 테러리스트들은 사람들을 겁주는 경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며, 다음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겁주려고 한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테러가 이어져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사람들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분노하며 연대하게 된다. 바로 이점이 "테러리스트의 탈레마"다.

마지막으로 젠킨은 크리스천 공동체의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비극을 이해하게 해주고 위안을 주는 세계관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테러는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든, 학교 총격이든, 또 다른 전쟁이든, 신앙 지도자들은 그리스천공동체(교회)가 오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과 평강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9.11테러 12주년을 맞아 행해야 할 사명이다.

# 하나님 형상 되찾는 구원의 도구로

(1면에서 계속)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지나친 겸손이라며 비웃겠지만, 실리콘벨리에서는 그 정도면 진짜 적절한 겸손이다.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 벤처기업은 개인의 기본적인 체력관리를 도와줄 개인용 기기를 출시하여 아주 멋지게 소비문화에 파고든 회사—뷰의 미스피트—가 유일하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파편화된 가상세계에서 공동체를 재구성하겠다는 인디스의 목표도, 친구들과 가족들의 격려 가운데 건강을 추구하겠다는 피그의 목표도 결코 달성하기 쉬운 것이 아니며,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리콘벨리는 실패에 관대하며, 사업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위험에서 활력을 얻는다. 뷰, 세이버, 먼로, 애들러와의 만남에서 인성적이었던 점은, 풍성한 삶과 신앙에 관한 확신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낯선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그리스도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것을 만들려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뷰의 미스피트 웨어러블즈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작성하고 직접 읽어 유명해진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

름을 탄 것이다. "미친 사람. 부적응자(미스피트, misfit). 반항아. 말쑥꾸러기. 네모난 구멍에 박힌 둥근 못 같은 사람들." 흥미롭게도 애들러와의 대화에서 부적응자란 단어가 등장했다. "우리 인간은 소속감을 원하지요. 하지만 실리콘벨리는 부적응자들의 골짜기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제도에 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으로 돈을 버는 재주를 타고난 뷰도 어찌 보면 부적응자였다. 그는 '어바나 학생선교대회'에서 시애틀 퍼시픽대학교의 제프 밴 더저의 책을 접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사업하는 그리스천 모델을 찾아 헤맸다. 그는 3년마다 열리는 선교대회를 지금까지 네 차례 참석했다.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업관이 존재할까요?" 첫 인터뷰에서 뷰가 내게 던진 질문이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표현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제로 이 문구를 회사 규정에 넣었습니다. 회사 사명선언문에 그러한 문구를 넣기가 아주 힘들었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과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인류의 풍성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을까? 뷰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답으로 본다.

"사람들은 슈퍼파워를 원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더 확대되고 더 좋아지기를 열망합니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약점을 설명하고 나쁜 습관은 고치기 원하지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슈퍼파워를 갈망하지만 자신의 약점에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부적응자라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능력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연관함을 노출시킨다. 과연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양면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면서도 그 형상을 망가뜨리는 본성을 구원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뷰 같은 기업가들이 성공한다면, 실리콘벨리는 실리콘이나 골드러시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는 곳, 부적응자들도, 아니 특히 부적응자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질 것이다. (끝)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 시편' 은혜 나누기

## 성령의 은혜가 항상 나타나는 거룩한 사람이

(시 101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의 영혼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영혼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새로이 지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면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변화된 사람 중심에는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자원은 마음이 영원히 솟아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속 사람은, 그 영혼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가 된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존재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생명의 흐름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 즉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죄성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거룩한 기쁨으로 찬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더욱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육신에서는 이전에 가진 죄성은 그대로 살아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도록 충동하고 이끌어가지도 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주전에는 이방인 나라가 있어서 수시로 전쟁이 있어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과 같이 대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 영혼 중심에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기쁨은 뿌리가 없는 것과 같아서 마치 요4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과 거룩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만족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에 열려 있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부터 항상 나타나는 생명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품고 누림으로 인하여 육신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이기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내용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항상 나타나는 거룩한 생각, 주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지라도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생각과 마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내용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면 이는 열매 없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육신에서도 상대적으로 악함과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죄성에서 나오는 부정함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육신에서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서 살아가는 법을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시는 것이지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방인도 창기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내 것을 가지고 살라라, 내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심이 우리에게서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생활에서 누리고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현실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의 것을 받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힘에 대하여 주인께서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풍성하게 되어서 인생의 연륜이 더할수록 그 생명의 나타남이 풍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잎이 무성하는 인생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 담임 목사 청빙

랄리한인장로교회는 400명 이상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담임목사님을 찾습니다. 39년의 역사를 가진 본 교회는 미국 장로교 (Presbyterian Church-U.S.A.)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체 성전과 교육관이 있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Raleigh, North Carolina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자격

- 미국 이민목회경력 5년 이상 되신분
- 정규 신학 대학원 (M.Div)을 졸업하신 분
- 이중언어 (Korean and English)가 가능하신 분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인 미국체류가 가능하신 분
- 미국장로교 (PCUSA) 교단에 소속되어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제출 서류

- Personal Information Form (PCUSA에 속한 분들 한에서)
- 이력서 (한글 및 영문) Immigration/Citizenship Status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가족소개서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 고백서
- 최근 6개월 설교CD, DVD, 혹은 MP3 2편

### 문의 및 서류제출

정 영 장로 (919)274-1690(Cell) / Yeup Chong Chai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Address: 7712 Hilburn Drive Raleigh, NC 27613  
Ychong1@gmail.com

### 제출형식

설교동영상 CD, DVD 등은 우편 혹은 URL 링크로 제출해 주시고 이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전자 file로 제출하시되 우편송부도 가능하십니다. 제출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1차 선정대상자에게는 추가 서류나 Referenc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

10/15/2013

## 랄리 한인 장로 교회

(DuRaleigh Presbyterian Church)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orth Carolina 27612 / 919-787-4673, www.duraleigh.org



# 후임목사님 청빙

뉴욕실로암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Reformed church in America 교단에 목사로 자격을 갖추신 분
- 제출서류 1) 정규 신학교 M.Div, 졸업증명서  
2) 목사 안수 증  
3) 이력서(사진, 가족, 학력, 경력사항)  
4) 자기 소개서  
5) 목회 계획서  
6) 최근 영상 한국어 설교2개 와 영어설교 1개
- 제출 마감 2013년 12월31일
- 제출 처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35-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문의: 김인규 장로, (347)419-2929, inkyul@gmail.com

본교회에서는 EM중고등부를 담당하실 파트타임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 뉴욕실로암 장로교회

## ☆ 빛과 소금으로...

###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추석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먹거리가 풍성한 명절인 추석은 그야말로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햇곡식으로 송편을 빚어 솥을 깔고 찌면 그 향은 온 집안

에 가득하게 퍼져 입맛을 돋게 했습니다.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솥을 넣는 재료에 따라 그 맛이 달랐는데 콩 또는 참깨를 넣어 만들었습니다. 참깨를 넣은 것이 제일 맛있

었기에 송편을 찌놓는 커다란 바구니에서 참깨를 넣은 것을 골라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추석이 오면 '추석빔'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빔'이란 단어는 '꾸미다'란 뜻을 가진 동사의 명사형인 '움'으로부터 변화한 어형으로 '움(비움)비움(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석빔'은 '추석에 꾸밈', 또는 '추석에 장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제들이 많다 보니 형이 입던 옷을 돌려 입었던 시절이라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명절이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바지의 재료는 '골덴'으로 만든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골덴 바지'는 조금 입으면 무릎이 튀어 나오고 쉽게 구멍이 나서 실용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개구쟁이의 엄마들은 옷 특히 엉덩이와 무릎을 다른 천으로

덧붙여 입히곤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에는 '나일론'을 소재로 한 바지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바지는 참으로 획기적이었습니다. 질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색상도 다양하여 아이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해 추석 우리 형제는 집 앞 문에서 아버지 퇴근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빈손의 아버지가 어쩌나 원망스럽던지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게 된 사연은 나의 그 서운함을 자부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잔'에서 근무하시면서 가난한 이웃들의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 해주셔서 늘 월급통부는 알뜰했고 그 때문에 추석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추석빔'을 선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자녀들에게 '추석빔'을 선물하는 풍속은 사라지고

부모님께 명절선물을 드리는 풍속이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 가정에 자녀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오는 모습들은 참으로 아찔했습니다. 양손에 선물꾸러미를 가득 들고 버스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일찍 도시로 나간 자녀들은 산업전선에서 고생하면서도 명절이 되면 많은 선물을 들고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위험하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던 어른 교인들의 환한 모습이 생생합니다. 자녀들이 다녀가면 서로 선물을 펼쳐 보이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명절이 낀 주일에는 교인들과 귀향한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명절은 그들이 돌아간 후에 어

머님이 계신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제대로 된 명절을 지낸 기억이 없습니다. 도마여 살다보니 명절은 더군다나 관심에서 멀어졌고 무심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올 봄 고국방문을 하여 처가에 머물렀습니다. 장모님께서 지난 명절에 전복과 버섯을 잘 먹었다고 하시면서 귀한 것을 보내주어 고맙다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장가보낸 아들이 멀리 계신 외할머니께 명절선물을 보내드린 것이었습니다. 칭찬하시는 장모님의 환한 얼굴이 마치 옛날 지방목회 시절 어른 교인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금번 추석에는 어머니께 장모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명절선물을 해보려 합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가 지구 이쪽, 저쪽에 멀리 퍼지게 말입니다.

## 푸 / 른 / 초 / 장

### 나성균 목사

(살롯장로교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위치에 가끔 서 본다. 더구나 목회자라면 자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끝마쳐가는 중에도,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쳐치하고 가나안 직전 모압 평지에서 차세대에게 가나안을 들어가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만 할까?

본문은 그들에게 그리고 모세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실을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 모세는 신명기 첫 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대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놓고 너희 부모처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1장 시작하자마자 행정조직정비를 말하고 나서 즉시 언급하고 있다. 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강한 교훈이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후기시대에 들어선 우리가 다시 한 번 사느냐 죽느냐의 영적 대결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대부분 고성과 어려움 속에서, 아니 극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속을 지나왔다. 그때는 그래도 삶은 어려워도 불타는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겼기에 오히려 두려워 할 게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생활수준은 좀 높아지고 문화수준은 세계를 달린다하여도, 느느니 경제와 질병 등 삶의 현상문제요, 들리느니 범죄와 자살과 폭력과 부정부패이다. 도

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참으로 앞 길이 안 보인다. 우리 세대의 신앙은 약해졌대로 약해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망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만나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 동역하였던 그, 모든 불신앙과 타락과 반역에서 끝까지 사명을 수행한 바로 그에게서 해법을 찾자! 우리는 이렇게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멸망 길로 달려가는 세대에 무슨 격려와 충고와 교훈을 줄 것인가?

1. 원망하지 않겠다(26-28절).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온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불행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환경으로 하나님 사랑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경을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환경이 결코 없는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크고 높은 성들과 견고한 성벽, 그곳에 사는 네페림의 후손으로 알려진 아낙자손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 모세의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백성은 거의 언제나 원망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랑하였기에 어떤 것도 두려워 할 게 없었고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 지금 보이는 환경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게 만들어 줄 것뿐이다.

모세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신다고 하여도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에 간절히 간절히 의지하여 목숨 걸고 백성을 살려내는 복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하나되어 인생을 이끌어나가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약한 신자와 불신앙의 세대를 위하여 산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문제는 나에게 먼저 있는 것

이다. 내가 바로 서서 내 신앙경험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고 그 귀한 경험으로 내 주위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영향력을 끼쳐 선한 인도를 철저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희망이요, 이 시대의 문제해결이다.

모세는 끝까지 백성의 이 원망과 싸워야 했고 지금 우리도 바로 이 원망 곧 그 근거인 불신앙과 싸워야 한다. 아무리 세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하여도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서서 모세 같은 신앙만 가지고 전진한다면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능히 이 세대를 구할 수 있으리라! 신앙은 체험이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

람들이 살아도, 우리가 먼저 더 많은 체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대대적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희망은 있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우리가 우선 교회에서 모두 같이 기도하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흥분되며 확신되며,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2.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말할까(29-33절).

아무리 주위에서 떠돌고 원망하여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기에 모세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온 세상천지 아들 하나 믿고 기르고 살다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절망과 탄식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의 과거 역사하셨음을 잊지 말자. 늘 기억하고 묵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총만하여 가나안 7 족속 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애굽을 과거 철저히 몰리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어려움이 와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고 오히려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현재인 신앙이 내 것이 되도록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랑을 잊지 말자!

둘째, 아버지 같은 사랑을 잊지 말자. 아버지 같은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아직 어린 자식이 피곤하여 길을 걷기 어려울 때 안고 길을 가셨던 것 같은 사랑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랑체험이다. 흥해 앞의 절망도 따뜻한

사랑의 배려로 흥해를 갈라 육지같이 걷게 하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모든 필요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의 모든 필요를 자세하고 따뜻하게 채워주시듯이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시 잊지 않는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권능의 사랑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다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셋째, 인도의 사랑이다. 광야는 거칠고 척박하기 짝이 없다. 어디로 가야할지,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가 도둑이 없으며, 맹수가 출몰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그곳을 완벽하게 아시고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곳을 찾아 사랑하는 백성이 진을 칠 수 있도록 앞서 가셔서 그곳에 구름 기둥이 머물게 하시며 혹은 불기둥을 머물게 하셔서 우리의 거칠고 예측불허의 위험한 생활의 상징인 광야생활을 완벽하게 이끄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돌아켜보자. 지난날은 어떠한가,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아무런 광야생활의 이스라엘 같겠으며, 그들의 원망을 쉴 새 없이 들으며, 인도하였던 모세만큼 어렵기야 하겠는가? 우리의 앞길도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배우자! 확실하고 똑똑하게 배우도록 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리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세밀히 체험하고 잊지 않으므로 그분과 함께 불가능을 돌파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자. 모압 광야 그 많은 백성들 앞의 모세처럼!

### <초교파>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제1기 세미나

#### 포럼의 취지

-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모임
- 시대적, 현실적 요구를 4차원영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모임
- 4차원 영성을 성도들의 실천신앙으로 확립코져 하는모임
- 영적힘의 원리인 4차원 영성을 통한 창조적 리더십 발휘
- 4차원 영성을 통한 개인적, 공동체적 변화의 기적체험

#### 포럼의 활동

- 영산 조용기목사의 4차원 영성 강의
-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세미나
- 교육교재 및 서적, 연구집 발간
- 지역별 / 전문별 Net-Work 형성
- 1사 1교회 자매 결연
-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과 연계하여 국제 활동
- 4차원 영성 상호회 가입



일 시: 2013년 10월 5일(토) 오전 8시~12시(4시간)  
장 소: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1층 세미나실  
자격(참석):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장로권사, 집사  
참가비: 100불(식사+교재포함)  
선착순 신청자한하여 참석가능함, 40명

#### [문의]

회장 석종규 목사 714-318-9528  
수석부회장 최명상 목사 323-317-3749

## 주최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하여 도전해 왔다. 성경에 기록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성서비평과 함께 성경을 마구 난도질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의 주장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증거한다. 그랜트 제프리 교수는 그의 저서 "The Signature of God"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성경의 기술을 전적으로 부정할 단 하나의 고고학적 발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또한 지난 세기의 가장 뛰어난 유대인 고고학자인 넬슨 글렉은 그의 저서 "Rivers in the Desert"에서 "성경의 말씀은 부정하는 고고학적 발굴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증명했다. 성서고고학은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한다.

대를 연 솔로몬은 각종 건축을 했고 그의 유적들은 오늘도 곳곳에 발굴된다. 솔로몬의 유적들은 전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 흩어져서 발굴되었다. 솔로몬은 3개의 군사 병거성을 짓는다(왕상9:15). 하솔과 솔로몬이 지은 여러 도시들이 확인되었다. 솔로몬 시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성벽과 마룻간 구조물들과 대문들을 솔로몬 시대의 것으로 확인했다.

1980년에는 케테프 힌놈 은관 두루마리(Ketef Hinnom Silver Scroll)가 발견되었다. 힌놈의 골짜기를 동쪽으로 굽어보는 작은 암벽 석실 무덤 지역에서 유다 왕국 말기에서 바벨론 포로기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묘를 발굴했다. 사람의 뼈와 함께 부장품들이 발견

동품상에 나왔던 것이 프랑스의 고고학 학자인 앙드레 르메르가 그 가치를 발견했다.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이 소장된 석류 장식품이 솔로몬 성전시대 제사장들이 사용한 물품으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다.

여리고 성벽의 발굴은 성서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한지를 확인시켜준다. 여호수아 6:20의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씀은 비판과 도전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여리고를 발굴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여리고 성벽은 이중의 벽으로 약 12-15피트의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무너진 벽을 딛고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여호수아 6:24은 여리고성을 정복시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리고의 동쪽을 발굴해 보면 도시의 부분 부분에 불에 탄 흔적들과 잔해들이 3피트 정도 두께로 쌓여 있음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그 층에서 발굴된 항아리에는 곡식으로 가득차 있음도 발견되었

역사적 실존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예수님께 사형을 선도한 빌라도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성경 밖에서 다른 자료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61년까지 32인치된 대리석 비석이 발굴되었다. 가이사라 원형 극장에서 계단 좌석에서 빌라도 비석이 발굴됨으로 빌라도의 이름과 직책과 통치 지역과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는지 기록되어 있다. 빌라도의 역사성이 2000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십자가형의 역사성도 증명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했다. 십자가형의 방법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없었다. 십자가형은 노예들이나 반란자에 대한 형벌이었다.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못으로 박히거나 묶어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서 두었다. 성경은 십자가형법을 마27장에서 자세히 묘사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십자가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1968년도에 유대인의 무덤 동굴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의 잔해가 발굴되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었던 못은 죽은 사람의 뼈에 박혀있는 그대로 발견되었다. 예수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영향력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찬양을 성도들이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주세요. 이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디나에서 오전도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찬양 사역자는 실제적으로 찬양사역도 하지만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과거 구약의 장막성전을 짓기 위해 드려진 것들을 거제로 불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제로 드리라는 것은 찬양의 제사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우리나라 자원함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영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전제로 드려야 합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정성을

### 찬양은 거제, 전제, 요제로 드리며 창화해야

그리고 우리의 주님향한 사랑, 생명 일체를 쏟아 붓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쏟아 붓는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니라"(시69:30-31).

셋째, 창화해야 합니다. 이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의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창화합니다. 창화라는 말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사6:4을 보면 창화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를 인하여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흔들하며 요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려 창화해야 합니다. 교회 창문이 들쭉들쭉 할 정도로 크게 불러야 합니다.

넷째, 요제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빵 과자 혹은 어린 양의 어깨를 흔들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을 흔들며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찬양할 때는 조용히 경건되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어떤 때는 전체 회중이 몸을 약간 흔들면서 어깨를 좌우로 들쭉들쭉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 펜타코스트교회를 빌려본 적이 있는데 틱틈이 그들이 드리는 주일예배에 참석해보았습니다. 예배 시에 주로 5-6곡의 찬양을 연속적으로 부르는데 그들의 찬양시간은 전부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앉아서 찬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조용히 찬양하다가도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은 온 몸으로 춤을 추듯이 찬양합니다. 어깨를 들쭉거리며 몸을 흔들면서 박수도 쳐가면서 찬양하는데 보기도 은혜가 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제의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처럼 기쁨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가대도 보통 조용하게 찬양하지만 어떤 때는 서로 손을 맞잡고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듯이 찬양하는데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독일의 어떤 지방에서는 어떤 인사가 '찬미예수 우리 주 예수님을 찬미합시다'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삶 전체가 찬양의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성서 고고학이 증명하는 성경의 역사성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텔 단 석비(The Tel Dan Stele)는 다윗왕국의 역사성을 증명한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다윗왕과 다윗왕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건축한 유적들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역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윗왕에 대한 직접적인 고고학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윗이 전쟁을 하느라고 바빠서 건축공사를 할 여유가 없었다.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다윗의 존재가 허구이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966년부터 예루살렘의 히브리 유니온대학 발굴팀이 아브라함 비란(A. Biran) 교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북쪽의 단의 유적층을 발굴해왔다. 1993년 텔 단의 주전 9세기 유적층인 무너진 성벽 돌 틈 사이에서 깨어진 아랍어 비문 조각 한 조각이 발견되었다. 단 석비의 중요성은 비록 그것이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지만 팔레스틴에서 발굴된 기록물로서 최초로 다윗 가문(House of David)을 언급하고 있으며, 세 조각들의 보완 일기를 통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다윗 가문의 왕 아하시야의 이름도 확인하게 되었다.

반면에 다윗에 이어서 평화의 시

되었다. 이곳 발굴 장소의 이름을 그 지형의 위치에 따라서 "힌놈 골짜기의 어깨 등성"이란 뜻으로 히브리어 "케테프 힌놈"이라고 부른다. 소형의 은관 두루마리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표면에 주전 6세기 초의 고대 히브리어 서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자들이 발굴되었다. 은관 두루마리에는 대제사장의 축도 문(민6:24-26)의 내용이 요약되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주전 2세기의 내쉬 파피루스나, 사해사본보다 그 연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구약 본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랜 증거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이 소장 전시되고 있다.

주전 8세기의 제사장의 홀도 발굴되었다. 상아 석류 명문(Ivory Pomegranate Inscription)은 높이가 5cm 정도의 상아로 만든 석류 모양의 장식품이다. 석류 장식 밑바닥에는 사각형의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자루를 끼워 예식 때에 제사장들의 홀(scepter)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류 장식의 목 아래 어깨 둘레에는 주전 8세기의 서체로 감정되는 고대 히브리어 명문이 '(여호와와) 전에 속한. 제사장들의 성물' 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상아 석류 명문은 1979년 골

다. 성경 말씀처럼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멸망한 것을 보여준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사해 사본들을 빼 놓을 수 없다.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은 주후 10세기의 사본이었다.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온갖 의혹과 비판이 있었다. 1947년부터 1956년에 이르기까지 사해부근의 쿠파란의 거주지 근처에서 수많은 고대사본들이 발굴되었다.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은 주전 200년부터 주후 70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것들이다. 사본은 4만개에 이르는 고대사본, 하북국과 미가서 성경주석, 쿠파란 생활 자체에 대해 기록해 놓은 문서 등이 발견되었다. 800개 사본을 감정한 결과 170개 사본은 에스터를 제외한 구약 전편이 발굴되고, 특별히 이사야서는 완전한 사본이 발굴되었다. 히브리어와 아랍어 그리고 희랍어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본들이 발굴이 되었다. 사해 사본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이 너무나 놀람도록 정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본디오 빌라도의 비석의 발굴은 신약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한다. 사람들은 마27장의 본디오 빌라도의

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집트에서도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발견들이 여럿이 있다. 특히 야웨 비문은 출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다. 주전 1400년 경의 것으로 보이는 비문은 이집트의 아멘호텝 3세 시대의 것으로 지금의 수단인 소렐에서 발굴되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로 보이는 무리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이집트에 있는 메네폀 비석은 1896년 이집트의 서부 테베에서 발굴되었다. 이는 성경 밖에서 이스라엘 언급되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주전 1210년에 기록된 이 돌비는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이집트의 이스라엘 침공을 증명하는 부조가 카르나 신전에서 발굴되었다. 바로 시삭의 군사적 공격을 기록하는 과정에 주전 925년의 이스라엘 침공의 사실도 부조로 새겨져 있다(왕상14:25). 애굽의 신 아몬의 큰 형상과 함께 이스라엘 드것도도 그가 공격한 도시 중에 하나로 새겨 있다.

(6면으로 계속)

#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3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3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Simon Lee) 5310 Illahee Lane NE, Olympia, WA 98516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253-988-0313(Simon Lee) 773-206-3809(Hyomyeong Rhiew)

2013년 9월 1일

##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영/ 장학위원장: 이상진/운영부: 홍순백/서기:김정준/홍보담당:이상천

#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자녀영성성전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 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해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준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현, 이만형, 김혜천 목사로서 강의한 순서대로 수록됐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목회서신

태산을 넘어 미국에 가도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공항에 가면 긴 이별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몇 년 안에는 다시 못 볼 사람들을 배웅하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김포국제공항에 가본 분들은 그리

스도인들의 이별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 가는 성도들을 환송하기 위해 교인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주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가사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성도에게는 '태산을 넘어 미국에 가도'로 불러주고, 독일에 가는 성도에게는 '태산을 넘어 독일에 가도'로 불러주었습니다. 부

르다 보면 어느새 두 눈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요즘 이민 가는 분들은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그렇게 울지 않고 헤어집니다.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간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 그곳에 가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는 보장이 희박했던 시절에는 공항이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자식 한국에 두고 미국 가면서 돈 벌어서 안정되면 데리러오겠다고 하고 떠났는데, 10년 15년 못 만나다 다시 만나보니, 남편은 혼자 사는 외로움을 못 이겨 미국에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가족을 사별할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픔은 고통으로 변저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영원한 세계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곳으로 떠나보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마28:19 새번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헤어지지만 영혼은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헤어져도 영적으로 늘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실제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다보면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별한 분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도 중에 묵상하다보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별의 아픔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성인 59% "시리아 군사개입 반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개입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국민의 과반수는 여전히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CNN방송과 여론조사업체 ORC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 6-8일 전국의 성인 1천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의회의 군사개입 결의안 처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찬반을 밝히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56%는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원과 무소속은 찬성 응답 비율이 각각 36%와 2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의회가 공습을 승인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전체의 55%는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71%가 군사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응답자의 69%는 시리아 군사개입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72%는 공습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82%가 신뢰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은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군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 설득을 위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전체의 57%는 시리아 군사개입 결의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찬반이 향후 선거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31%는 결의안에 반대할 경우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성인 1천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는 시리아 군사개입에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중동기독교지도자들 "미국 군사공격 반대"

[미션라이프] 미국의 시리아 공습 여부가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와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9일 시리아의 기독교인 거주 지역인 말룰라 지역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반군 조직 자바트 알누스라에 점령됐다고 전하면서 "정부군이 화학무기 공격을 할 경우 이 지역 기독교인들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룰라는 수도 다마스쿠스와 제2의 도시 홈스 사이에 위치해,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경우 말룰라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인디펜던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최소한 휴전 협상 테이블에 양측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요르단 암만에서 압둘라왕의 주재로 열린 아랍 크리스천 지도자 평화 콘퍼런스에서도 시리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행사가 참여한 미국 언론인 로마 다우니가 밝혔다. 다우니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러한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에서 온 기독교 지도자들 중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하길 원하지 않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내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 공격은 사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 공포와 폭력을 확산시켜 기독교인들이 더욱 압박 받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의회가 시리아 공격안을 부결시킨 데에도 전쟁에 반대하는 성공회의 입장이 영향을 끼쳤다. 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지난달 27일 데일리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사

람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는 상태"라며 "아사드 정권을 무력으로 추출하기 전에 여러 중재 방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66% "의미있는 삶 위해 성경 필요"

미국인 가운데 3분의2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성서협회의 2013년 성서현황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성경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성인 20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성경을 가장 성스러운 책으로 꼽았다.



응답자 가운데 77%는 미국사회의 도덕적 가치 하락을 우려했는데 그 이유로 22%는 성경 읽기 부족을 들었다.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29%)이나 기업들의 탐욕(25%) 등 다른 이유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성경을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열심히 읽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57%는 1년에 5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고 17%는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1주일에 4번 정도 성경을 본다는 사람은 21%였다. 하지만 응답자 중 61%는 "더 자주 성경을 읽고 싶다"고 답했다.

미국성서협회는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한 성경봉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성서협회에 따르면 미국인 중 41%는 인터넷으로 성경을 본 적이 있다. 미국성서협회 홍보담당 지오프 모린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본다"고 꼬집은 뒤 "다음세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일 총동은 카탈 마을에 사는 수천명의 힌두교 신자 농부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사건수습책을 논의하던 도중 일부에서 '무슬림을 죽여야 한다'고 선동한 뒤 발생했다. 농부들은 회의 후 귀가하는 동안 소총과 흉기로 무장한 무슬림 측의 공격을 받았다. 총동이 격화하자 주정부는 군병력을 투입하면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또 무자파르나카르 및 주변지역에 통금령을 내렸다. 하지만 총동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소문이 퍼지면서 총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십 쿠마르 신데 중앙정부 내무장관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에 총동이 번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신데 장관은 내년 5월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이번 총동에 따른 긴장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다른 27개 주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인도 힌두교도-무슬림 총동 27명 사망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성희롱 문제로 촉발된 힌두교 신자와 무슬림 간의 총동으로 이틀새 27명

이 사망했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군병력을 투입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으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총동 확산이 우려된다.



9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주 무자파르나카르 구역에서 지난 7일 힌두교 신자와 무슬림 간 총동이 발생, 13명이 사망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총동이 이어져 14명이 숨졌다. 이번 총동은 성희롱 문제가 발단이 됐다. 지난달 27일 무자파르나카르의 카왈 마을에서 두 형제가 자신들의 여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공동체에 속하는 남자 1명을 살해하자 다른 공동체측에서 즉각 보복에서 나서 남자 2명을 숨지게 한 뒤 긴장감이 고조돼 온 가운데 일어났다. 당초 문제를 일으킨 두 형제가 어느 종교공동체에 속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일 총동은 카왈 마을에 사는 수천명의 힌두교 신자 농부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사건수습책을 논의하던 도중 일부에서 '무슬림을 죽여야 한다'고 선동한 뒤 발생했다. 농부들은 회의 후 귀가하는 동안 소총과 흉기로 무장한 무슬림 측의 공격을 받았다. 총동이 격화하자 주정부는 군병력을 투입하면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또 무자파르나카르 및 주변지역에 통금령을 내렸다. 하지만 총동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소문이 퍼지면서 총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십 쿠마르 신데 중앙정부 내무장관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에 총동이 번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신데 장관은 내년 5월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이번 총동에 따른 긴장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다른 27개 주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인구 2억여명으로 인도의 28개주 가운데 최다인 우타르프라데시에서 1992년 12월 힌두교 신자들이 16세 기 지어진 이슬람 사원을 파괴한 이후 종교간 총동이 발생,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는 인도에서 일어난 최악의 힌두-무슬림 총동사건의 하나로 기록됐다. 인도에선 12억 인구의 80% 이상인 힌두교 신자와 소수인 무슬림(1억7천만명, 13%)간 총동이 늘고 추세를 보인다. 총동 건수는 작년 410건에서 올해는 이미 451건에 달했다.

(5면에서 계속)

뿐만 아니라 아합왕에 대한 기록도 발굴되었다. Kurkh Monolith라고 불리는 오벨리스크는 1862년 터키의 Kurkh에서 발견되었다. 주전 850년경 앗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는 상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해독을 한 결과 성경에 자주 언급되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왕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물이다. 아합왕의 역사성도 증명되었다. 아합왕은 비단 이 비문뿐 아니

라 사마리아 궁전 등 여러 건축물들이 발굴되었다.

살만에셀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성을 증거한다. 9세기 앗수르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석은 검은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상형문자로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인 예후와 오므리가 등장한다. 예후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왕이 앗수르 왕에게 절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1846년에 발굴되어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경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발견들은 많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주님의 사랑은 마지막 시대에 말없이 땅에 감추어진 돌들을 사용하신다. 믿

지도 않고 고백하지 않는 강박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무오성을 돌들이 소리치르고 있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8월 22일(목) ~ 31일(토) 9월 2일(월) ~ 1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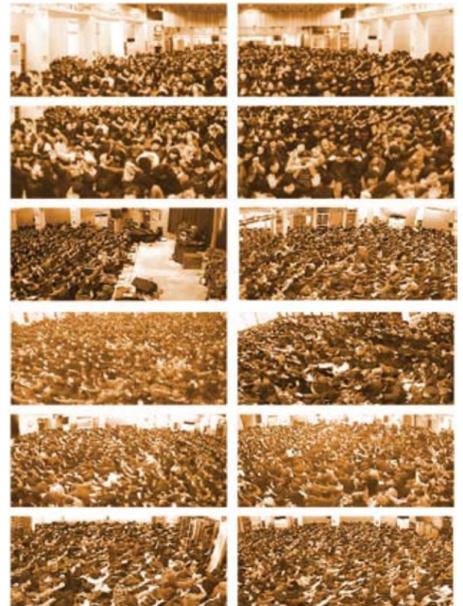
| 문의 : (213)382-1450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라 (3)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담임)

타종교와의 대화 접촉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종교성

이미 위에서 살펴 본대로 그들의 타종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접촉점 찾기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사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활용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접촉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에게 심겨진 종교성, 즉 위에서 언급한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에서 출발하는 신앙심일 것이다. 루이스 벨콕은 "종교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현상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근원과 접촉하고,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며,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종교성에 뿌리를 내려갈 씨앗은 순수한 복음이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순수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엄밀하게 말해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온갖 종교적 외양을 갖추고 있었던 예루살렘성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들의 과신으로 인한 교만은 시기와 증오로 변했고 마침내 하

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조롱하는 예수, 그는 종교 밖으로 끌려 나가 처형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종교는 이처럼 부패한 인간 안

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 다원주의란 애초부터 기독교와는 무관한 것이다. 적어도 타종교에서 말하는 본질적 개념이 변하지 않는 한 영원히 그러하다. 이 말은 곧 기독교는 세상에 각양각색으로 존재하는 많은 종교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음은 죄 아래에 있는 인류가 그 죄를 짊어진 삶의 무게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 할 때 죄사함과 구원을 알게 하기위해 들은 해가 되어 위로부터 인류에게 임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그러므로 뿌려진 것이 복음의 씨앗이 아닌 이상 아무리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일지되어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아니고 하나 됨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무엇을 이루어 내는가보다 무엇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타종교들과의 대화를 위한 접촉점을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인 기독교의 포기에 둔 다원주의적 메시지에 대한 필연적 결과가 무엇일까? 여기서 판넨베르크(W. Pannenberg)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전통적 기독교의 폐기는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오게 될 것

는 것이다. 타종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점을 간과한다면 그들은 결국 배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5. 배교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미명아래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으로 포장하고 무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기에 거대한 숨은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종교를 빙자한 '새 세계질서'이다. 1967년 4월 14일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이미 새 세계질서를 시사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에 대해 언급하였고, 바오로 6세의 새 세계질서는 로마 세력의 산물인 로마클럽과 미국정부의 실제세력인 외교관계위원회(CFR)에 의해 추진되어왔으며, 유엔도 이 클럽의 착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것이 유혹적이고 목적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4).

유대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비문에서 우리는 원초적인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바빌론이 지구라트, 에테메난키(전지 기초의 집)를 높이 세우고 그 기초를 저승의 품에 두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

어찌 저쪽만의 모습일까? 인간의 잘못된 하나 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인간의 죄된 속성은 지금도 동일하다. 2009년 '종교와 공공생

6. 맺는 말

다원주의를 말할 때 흔히들 산(山)을 들어 설명을 하곤 한다.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 본대로 그 정상이라는 신중심의 개념도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들어진 그들 나름의 궁극적 실재이다. 설사 그들이 말하는 신 개념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길은 산으로 비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요 10:7).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성경은 이처럼 문을 말한다. 그것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7:13).

하나님의 자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길은 좁고 험악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롬10:9 참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이르니 하였더라"(행 4:12).

Email: kyu2000@hotmail.com (끝)

##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교만에서 출발... 목적성과 방향성 중요 기독교는 정상으로 오르는 '길' 아닌 좁은 '문' 으로 들어가야

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독교의 배타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신중심적 대화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현대 다원주의의 경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러면서 결국 '신(神) 중심주의'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신(神), 즉 하나님의 정체에 대한 인식과 현현의 독창성과 본성적 인식의 차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이단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공통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그가 인류의 구원자임을 은폐시키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강해질 수 있다는 피상적인 원칙 논리에 고개를 숙이고 종교다원주의의 내지는 종교혼합주의에 기독교 신앙은 점점 침식당하며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항상 좋을까? 하나가 되는 뿌리가 문제이고 목적과 방향성이 문제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하나 됨은 교만에서 출발했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하나 됨이 그랬고 벽돌을 구어 하늘 높이 쌓아 올린 교만의 탑, 시날 평지 문명의 도시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하나 됨의 결과가 아니었던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는 것, 처음부터 인간은 그

할'에 관한 퓨포럼(Pew Forum)의 조사 결과를 따르면 미국인들의 65% 가량은 뉴에이지나 동양의 종교적 사교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중에는 스스로를 기독교인과 가톨릭 신자로 밝힌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 현상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거나(26%), 점성술을 신봉하고(25%), 환생을 믿거나(24%), 요가를 영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것(23%)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고후6:15).

의 초대교회들은 구약과 비교해서 찬양을 성가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는 교회 중에서 찬미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에 구원 받은 그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부를 노래는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대로 144,000명이 부르는 새 노래 즉 '어린양의 노래'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날이 오면 이 땅 위에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지만 단 한 가지 영원한 것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뿐이라는 말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 칼럼 음악목회 (13)

## 음악목회의 실제(상)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150편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시편기자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노래인 시편 1편으로부터 150편까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그 한 마디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불려야 할 찬송이기에 음악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즉 찬송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요, 예배라는 말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가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되었던 성가대의 모범을 구약 역대하5장13-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

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88명의 노래하는 사람(대상25장)과 총 4,000명의 음악가들(대상23장)로 구성된 레위지파 성가대의 찬양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의 지휘를 받으며 제금, 비파, 수금, 그리고 120명의 나팔수의 반주로 찬양을 드렸으며 이 음악을 통해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가대가 무엇을 해야 하며 예배에

서 성가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다락방에서 만찬을 끝내고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찬송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으며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회와 에베소교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골3:16 엡5:19)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고통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약5:3)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제단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히브리서 2장12절에서는 "내가 주를 교회중에서 찬송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의 초대교회들은 구약과 비교해서 찬양을 성가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는 교회 중에서 찬미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에 구원 받은 그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부를 노래는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대로 144,000명이 부르는 새 노래 즉 '어린양의 노래'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날이 오면 이 땅 위에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지만 단 한 가지 영원한 것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뿐이라는 말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On Campus Courses

##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부분을 대부정합(Great Unconformity)이라고 부른다. 부정합이란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알 수 없는 시간간격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랜드캐년과 같은 부정합은 지구 어디에서나 발견되므로 대부정합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노아홍수격변이 시작하는, 온 깊음의 샘들이 터지는 초기에 가공할만한 침식이 일어나고 그 위에 굵은 모래알이 먼저 퇴적되고 나중에 좀 더 작은 모래알들이 퇴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랜드캐년의 이 모래지층을 사암층이라고 하는데 그랜드캐년 전 지역과 유타지역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지층이 유럽과 북반구 전체에도 깔려 있다. 전지구적인 격변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 태핏 사암

앞에서 설명한 그랜드캐년의 맨 아래 즉 암반 바로 위에 모래로 된 지층을 태핏사암(Tapeats Sandstone)이라고 부르는데 진화론적으로는 캄브리아기의 첫 번째 지

### 대형 지층 그룹들

그랜드캐년의 지층들을 보면 각 지층들이 빨간 지층들 혹은 하얀 지층 등 그룹으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지층그룹들은 대양의 물이 육지 위로 완전히 올라왔다가 퇴각하는 사건 같은 현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퇴적과 침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일어날 때 그랜드캐년의 대형 지층그룹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세상 과학자들은 각 층이 만들어지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창세기 8:3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점점”이란 히브리어 표현에는 물이 계속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하면서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랜드캐년의 거대한 지층그룹과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들을 살펴보면 홍수의 물이 왔다갔다하면서 만들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심은 충성을 결단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평야에는 믿음으로 잘 가는 듯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바람이 불어도 문제목상에 빠져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바람 부는 위기는 자신의 믿음을 다지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잠시 흔들려도 곧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선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자신을 겸손히 지키기 거룩인생이 되느냐? 가다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의 기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다고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임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실망하여 절망의 늪에 빠져, 물아세우는 불안을 따라가 자신을 파멸로 몰아세우며 너무도 슬퍼하십니다. 인생 중에 위기는 예고 없이 너도 나도 구별 없이 모두에게 들어닥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생명 걸고 따라잡이 우리를 모든 불로 빠져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저는 구비 구비마다 구해주시는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진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죽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허다한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손길도 너무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즉각 압당한 불신앙의 생각들이 홍수를 치고 마음을 밀고 들어옵니다. 밀어 닦지는 불안에 또, 또, 속절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저입니다. 비록 잠시일지라도 불안에 넘어지는 저를 주님 앞에 끌고 와 엎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 된 자 주 앞에 나아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립니다(대하7:14). 비록 99년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또 바라봅니다. 비록 닦이지는 것을 일삼아도 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르렵니다. 아브라함의 종같이 그의 종됨을 자랑스레 여기듯 전심으로 충성하는 그 모습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늘 넘어져도 이제까지 잡아주셨 습니다 엘리에셀처럼 주님의 종다운 마음과 행보로 숨어서 돕는 내 자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충성하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함이 저의 힘입니다. 저의 삶의 원천이며 마침표이십니다. 살아도 죽어도 다시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만을 붙들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리라 결단합니다. 저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이 삶을 받으시고 주관하여 일하시옵소서. 성령행전을 즐거워 기쁨으로 따라 합니다.

그 가운데 만져주시는 모두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려요. Soli Deo Gloria!

## 교역 론 도와드립니다.

(516)227-1203, revpakm@gmail.com

## 154. 창조론의 기초(5) - 태극을 뒤덮고 있는 홍수 퇴적물들

노아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면 성경기록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노아는 120년 동안 다가가 홍수심판을 경고하였다(창6:3). 만약 노아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면 노아가 죽을 때까지 동물들에게는 이 홍수를 피할 충분한 시간, 온 지구를 수십 바퀴도 더 돌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면 방주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 국지적인 홍수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을 쓸어버리겠다(창6:7)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노아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약속(창9:15)은 ‘국지적인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셈이다. 국지적인 홍수는 지금도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홍수를 국지적인 홍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

히브리어로 “갑분”이라고 부르는 노아홍수에 대한 지질학적인 증거들은 그 홍수가 전 지구적이며 격변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증거들이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 퍼져있다. 그 홍수는 전 지구적이었지만 모든 지역에 똑같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 퇴적물들

대부분의 퇴적물들은 아주 고운 가루로 된 진흙으로 나중에 이판암(shale)이라 불리는 암석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런 고운 진흙 입자들은 아주 고요한 바다바닥에서나 쌓일 수 있다. 이 고운 입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바다에 쌓이려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바다는 해류도 있고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입자들은 계속해서 물과 함께 떠다니게 되어 이판암을 이를 진흙으로 쌓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구는 이런 진흙으로 된 퇴적암으로 둘러 쌓여있다.

또, 그 입자들은 서로 엉겨 붙어 덩어리가 되게 할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 실험을 해보면 이런 영감현상은 물에 어떤 특별한 화학물질을 집어넣을 때만 가능하다. 고운 진흙 입자들은 커다란 덩어리가 되었을 때만 빨리 가라앉게

## 그랜드캐년 모래 사암층 유럽까지 전 지구적 현상 캄브리아기 첫 번째 지층에서도 각종 화석 발견



**노아홍수의 규모**

그랜드캐년의 태핏 사암층이 덮고 있는 지역을 보면 전 지구적 홍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되고 경사진 곳을 따라 흘러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런 환경조건이 우연히 만들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더욱이 수백 혹은 수천 마일의 광대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구를 덮고 있는 이판암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 대부정합

그랜드캐년에 가보면 수평으로 쌓인 평평한 지층이 끝나는 아래쪽에 지층이 없는 암반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광대한 암반 위부분도 역시 평평하게 깔여 있으며 그랜드캐년 전역에서 확인된다. 이

중이다. 캄브리아기는 화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가장 아래지층으로 고생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는 시대다. 그런데 이 지층부터 모든 형태의 생물들이 갑자기 화석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캄브리아 화석폭발”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진화론자들은 이 폭발적인 생명체 존재현상이 5억 5천만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조상도 없이 갑자기 완전히 발달된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그들에게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통하면, 모든 창조된 생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노아홍수의 격변에 묻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 놓은 성경역사의 증거들을 알 수 있다.

그랜드캐년 남쪽 립에 서서 북쪽 립을 바라보면 맨 위층에 하얀 띠처럼 보이는 지층이 있다. 그 지층을 코코니노 사암(Coconino Sandstone)층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께가 약 100-130m정도 된다. 세상 과학자들은 이 층이 사막의 모래언덕(sand dune)처럼 바람이 운반해온 모래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걸 보면 바람이 만든 급한 경사가 아니라 물로 만들어진 완만한 경사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층도 역시 노아홍수 중간 때쯤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아홍수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가장 큰 홍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지구를 멸망시켰던 사건(벧후3:6),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과 사람들이 전멸한 사건(창6:7)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던 완벽에 가까운 지구환경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오셨다는 복음은 이런 나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는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과 소망인 것이다.

###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이동관 선교사의 이야기. 초년병 선교사의 좌충우돌하던 경험과 아프리카의 실제 현장을 닦아드리며 가졌던 소박한 고민들을 담았다. 한 젊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솔직히 고백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꾸밈없이 풀어진 진솔하고 순수한 고백의 선교 이야기다.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 이동관, 박형란의 케냐 사랑 이야기 www.kensarang.com  
이동관 지음 / 264면 / 12,000원

**《너와 함께 가마》**  
캘리포니아 Lake House(기도의 집) 대표로 있는 김정숙 목사의 간증집. 저자는 캘리포니아 호수 엘시노어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올리고 심은 사람들이 언제든 지울 수 있는 따뜻한 기도처를 섬기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에는 잔잔한 위로가 흐른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인해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으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당황하며 주님을 부를 때 손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의 여정을 담고 있다.  
김정숙 지음 / 264면 / 12,000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가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춘 지음 / 264면 / 11,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상'으로 유명한 정종태목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육만

**성경 요절 2500 핵심**

www.k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저지교협 정기총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천 목사) 제 27회 정기 총회가 9월 30일(월) 오후 6시 뉴저지리나교회 (담임 김동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335-7357

### 뉴욕새생명장로교회 21일 특별새벽부흥성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가 2013년 “첫사랑 21일 특별새벽부흥성회”를 갖는다. 9월 16일(월)부터 10월 6일(주) 매일 새벽 6시, 강사는 허윤준 담임목사.

▲문의: (718)637-1470

### 예배와 찬양 클리닉

문석진 목사(뉴욕찬양마을 대표/미주기독교방송사장/씨존 대표)의 예배와 찬양 클리닉이 “영성 찬양 만들기” 주제로 1-4회 열린다. 1회는 찬양대 영성세미나로 2시간 강의, 4회 지도는 찬양대 지휘로 9월 1일부터 22일(4회)은 뉴욕갈릴리교회(담임 정도영 목사), 9월 29일 오후 2시30분 로슬린한인교회(담임 김사무엘 목사)에서 찬양대영성세미나(1회)로 열린다. 내용은 찬양대 지도, 찬양팀 지도, 음향점검을 지도한다.

▲문의: (347)538-1587

###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친선 골프대회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 문석진 목사) 후원을 위한 친선 골프대회가 오는 24일(화) 클리버뷰 골프장에서 열린다. 회비는 120달러(점심, 저녁, 카트, 그린피 포함), 이날 휴일원 상에는 캐딜락 승용차, 근접상은 한국왕복 항공권.

▲문의: (718)463-1700



뉴욕장로성가단이 공연하고 있다.

## 뉴욕장로성가단 제 9회 정기 연주회

### 뉴욕기독교TV 후원...2개 합창단, 솔로 특별출연도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 지휘 이정진 장로) 제 9회 정기 연주회가 지난 8일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기독교TV(KCTS) 후원을 위해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뉴욕장로성가단 외에 뉴욕권사신교합창단(지휘 양재원)과 KCTS새소망합창단(지휘 조공자) 등 합창단이 찬조 출연했으며 순서의 마지막에는 연합 찬양시간을 가졌다. 또 소프라노 유경화, 바리톤 이요한, 바이올린 유안나 등이 특별출연했다. 손성대 장로의 인사말에 이어 이규섭 목사가 기도했으며 뉴욕기독교TV를 위한 헌금시간을 가졌다.

준비위원장 이계훈 장로의 광고 후문서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뉴욕장로성가단은 “평화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 “깊은 강”, “생명의 샘물”, “나의 하나님”, “예수 인도하셨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주와 같이 살면”,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등을 불렀다. 이번 공연에서 뉴욕장로성가단은 약 50여명의 단원들이 참여해 11곡을 소화하며 어느 해보다도 웅장한 모습을 보였다.

(유원정 기자)

#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라”

## KAPC 뉴욕노회 제 73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허상회 목사) 제 73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일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허상회 목사의 인도로 기도 문중은 목사, 성경봉독 이준성 목사, 설교 허상회 목사, 성찬예식 집례 손한권 목사, 축도 이규본 목사, 광고 허윤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상회 목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골1:9-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르심의 조



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건인 ‘정직과 충성’이 있어야 하며 기도와 순종,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인내로 결실하는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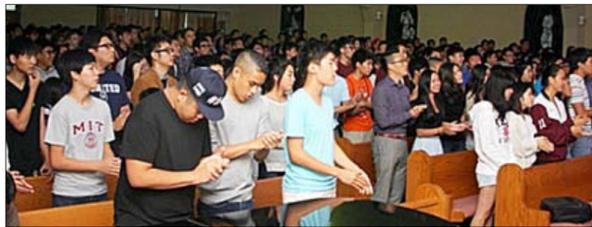
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회원 모두가 서로 화목하며 특히 생명의 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부 회무처리는 허상회 노회장의 사회로 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광고위원 및 출석위원 지명, 서기사무보고, 헌의 청원문서 접수보고, 각부보고, 각 시찰보고, 회계보고, 선교사역보고, 신안건동의, 내회장소결정, 회록 채택, 전임노회장 감사패 증정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노회에서 헌의 청원된 문서 중에는 이종식 목사(좋은땅한인교회), 정기태 목사(뉴욕새벽별장로교회), 박종원 전도사(선교회), 김병인 전도사(서포카운티장로교회) 가입,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 위임 목사 사무 사면 허락 및 남가주노회 이명, 퀸즈장로교회 임시 당회장(장영준 목사) 파송 청원 등이 있었다.

뉴욕노회는 뉴욕, 뉴욕동, 뉴욕서, 뉴저지 등 4개 시찰에 28개 교회, 55명의 목사회원과 6명의 장로총대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주최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에서 청소년들이 기도하고 있다.

## “위엿 것을 생각하라” 주제로

### 뉴욕교협 주최 할렐루야청소년대회 성료

뉴욕교협(회장 김중훈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청소년대회가 지난 6일과 7일 저녁 7시부터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제이슨김 목사(산호세 뉴비전교회)는 “위엿 것을 생각하라”(골3:2)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매년 성인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의 청소년 집회 성격으로 열리는 할렐루야대회는 올해 약간의 변화를 가졌다. 진행에 있어서 먼저 2개 찬양팀이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시 작에 앞서 찬양을 인도하던 팀 순서가 끝나자 청소년센터 학생으로 구성된 찬양팀이 조용한 찬양과 더불어

어 기도를 인도했다.

또 하나는 이번 여름 청소년센터의 카운슬러 프로그램을 인도한 에벤에셀선교회 Ricky Pinerio 전도사가 3명의 학생과 대담하는 순서를 진행했다. 대화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자신의 어려운 점을 솔직히 드러냈으며, 듣는 청소년들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고백 속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을 향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축도는 뉴욕교협 회장 김중훈 목사가 했다.

(유원정 기자)



국제기도공동체 뉴욕지역 설립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바른 기도신학, 간증, 섬김, 기도학교”

### 5일 국제기도공동체 뉴욕지역 설립감사예배

국제기도공동체(GPS, Global Prayer Society, 대표 김석원 목사)가 지난 5일 플라싱 금강산 연회장 에서 뉴욕지역 설립감사예배를 드렸다.

GPS미니스트리는 CCC(CRU) 국제본부 신학대학원 한국부 디렉터 및 교수인 김석원 목사(올랜드총현교회 담임)가 확장 스티브 클린턴 박사와 함께 시작했다. GPS 교과목은 CCC(CRU) 훈련프로그램 NLYC와 접목시킨 스기도와 전도 스기도와 양육 스기도와 리더십으로, 훈련 받은 지도자들을 세계 여러 도시에 파송해 GPS사역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대표 김석원 목사는 GPS의 목적이 “바른 기도신학”, “바른 간증”, “바른 섬김”, “바른 기도학교”라고 소개하고 △바른 기도신학으로 교회와 선교단체의 활성화 △믿음의 기도응답을 통한 바른 간증사역의 활성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축복을 나누며 바른 섬김 사역의 활성화 △한사람 이상 모였을 때 바른 사이버 글로벌 기도학교가 시작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성

헌 목사 인도로 기도 김해천 목사, 성경봉독 오시환 장로, 설교 한재홍 목사, 광고 및 인사 김석원 목사, 축도 박마이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예수님의 심정”(마26:39-4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됨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세미나는 송홍용 목사 사회로 김석원 목사가 GPS에 대해 소개하며 동영상을 상영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황영진 목사 인도로 △뉴욕교회의 각성과 부흥 △세계선교사역의 확대 및 선교사들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제목으로 김홍석 목사, 이재복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thegps.kr에서 볼 수 있다.

(유원정 기자)

## 필라 제 1회 교회대항 친선축구대회



지난 2일 필라델피아에서 거행된 제1회 할렐루야컵 교회대항 친선축구대회에서 필라델피아교회가 우승을 차지했다(사진).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거룩한 산제사' ...HYM 청년연합집회 제29회, 9월 21-22일 남가주동신교회에서

남가주청년연합회(HYM, 대표 더글러스김)가 주최하는 제29회 HYM청년연합집회가 오는 21일(토)과 22일(주) 양일간 저녁 7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개최된다. HYM관계자들은 10일 오전 11시30분 타운내 소향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회 집회에 남가주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29회 HYM청년연합집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HYM스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지용권 간사, 더글러스김 대표, 전정하 목사

더글러스김 대표는 "이번에 드리는 집회의 주제는 '거룩한 산제사(롬12:1,2)'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 지낼 때 여러 정황상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따라서 이번집회를 통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장로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석훈 목사. 서 목사는 아틀랜타 지역에서 HYM처럼 청년연합사역을 하고 있으며, 아틀랜타 지역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역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남가주지역 기독교 청년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게 된다.

또한 찬양인도는 HYM청년연합찬양팀(리더 송민우 목사)이 맡는다. 찬양팀 리더인 송 목사는 부에나파에 위치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의 청년사역과 찬양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송민우 목사는 한국에서부터 찬양사역에 헌신해온 목회자다.

HYM 스텝인 전정하 목사(행복한교회 담임)는 "HYM은 1세와 1.5세 한어권 청년들을 위한 연합사역체이다. 비록 몇 천명이 모이는 집회가 아닌 3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지만 참석하는 교회의 숫자는 3-40교회이다. 이는 HYM 사역이 의미가 있다는 증거"라 말하며 "교회와 청년공동체들의 사이

즈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만큼 많은 청년사역자들과 청년들이 집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글러스 김 대표는 "이민교회가 4,230여개가 있다고 하고 남가주지역에 1400여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중 90%정도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다. 이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HYM은 이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데 임의를 담당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각 교회의 청년공동체들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대형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수련회와 집회가 가능해 교회내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청년들이 5-10명 이하, 혹은 20명 정도다. 그리고 3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 중에서도 한어권 청년공동체가 형성돼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교회들이 HYM을 통해 한어권 청년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YM 관계자들은 이번집회를 통해 성령충만을 받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 청년공동체는 물론 교회공동체들을 세워나가 이 땅에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집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더글러스김 대표(714-393-51350, 전정하 목사(323-459-9832)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새찬양교회에서 열린 이준수 목사 간증과 찬양집회에서 이준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원안은 이날 특수를 한 자폐찬양사역자 마가렛 리 자매)

## '장애는 사명 이루는 또 다른 은혜'

새찬양교회, 이준수 목사 간증과 찬양집회

새찬양교회(담임 변운선 목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란 주제로 이준수 목사(남가주 밀알선교단 사역)를 초청, 간증과 찬양집회를 개최했다.

이준수 목사는 '고난 중에 받은 사명'(고후12:7-1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장애는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또 다른 은혜요, 달란트"라며 "지난 45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장애, 운명, 그리고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내려주신 사

명과 책임을 다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변운선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정무 집사의 기도, 시온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이준수 목사가 설교했으며, 자폐찬양사역자 마가렛 리 자매가 '사명',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등을 불렀다. 그리고 새찬양교회 교우들이 남가주밀알선교단에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변운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주안에행복교회 개척설립예배에서 조인구 담임목사가 예배인도를 하고 있다

## 주안에행복교회 개척설립 감사예배

"작지만 건강한 크리스천을 세우는 교회"로

주안에행복교회(담임 조인구 목사) 개척설립 감사예배가 8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조인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성호 목사가 기도, 소프라노 조현주 집사가 특별 찬양했으며,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가 '신앙공동체'(행 2:42-4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진준 목사는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 조직이나 장소가 아닌 인생관에 의해 형성됐다. 어려운 자들에게 자기 것을 팔아 나눠줄 수 있었고 하나님나라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르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스도공동체로 불려졌다"고 말했다.

노 목사는 "그들은 공동자산을 이룬 적이 없었다. 그들의 공동체는 조직, 교파, 파벌이 없었으며 이권 개입이 없는 공동체였다"고 말하며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담을 허는 일이며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들이 서로 눈치보고 공동체의 경쟁상태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다른 교회라면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 중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커뮤니티였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았고, 공동분배를 하는 공산주의도 아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교제를 나누는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노진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작지만 건강한 크리스천을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주안에행복교회는 교단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신앙적 노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배시간은 매주일 오전 11시이며 교회회차는 3550 Wilshire Blvd, Suit 124.

(박준호 기자)



WMU는 ATS정회원 인준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원안은 이날 설교를 한 송정명 총장)

## 월드미션대학 ATS 정회원인준 감사예배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학교 되자"

월드미션대학(총장 송정명 목사)이 한인기독교대학 중 최초로 ATS 정회원인준을 받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7일 오후 6시 월드미션대학 체펠에서 진행된 감사예배는 임성진 목사 사회, 윤성환 이사장 기도에 이어 송정명 총장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송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는 제목으로 "미주지역에 121개의 신학교가 있다는 통계다 그중 캘리포니아에만 64개가 있다. 이처럼 수많은 신학교 중 우리 학교에 이 인준을 허락하신 뜻이 있다. 청교도의 신앙위에 세워진 미국이 영적으로 쇠잔하고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며 이 사명을 주셨다"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가 되자"고 피력했다. 이날 축도는 본교설립자인 임동선 목사가 맡았다.

이어 축하시간을 통해 신선목 대학원장은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

으며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와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의 축사가 있었다.

이상명 총장은 "월드미션대의 ATS 정회원인준을 축하한다. 앞으로 한인 신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인신학교의 판도가 달라지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위탁한 비전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도수 총회장(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 바이올라대학 제니박 교수,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박기호 교수(풀러신학), 변명혜 교수(아주사대), 손인식 목사(벨엘교회), Daniel O. Aleshir(ATS Executive Director),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장) 등의 영상메시지가 있었으며 월드미션대 음악과 학생들의 축가로 자리를 한층 빛냈다.

월드미션대학은 ABHE, TRACS 정회원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지난 8월 8일 ATS로부터 정회원자격을 취득했다. (이성자 기자)



새교회 설립감사예배에서 원영호 목사가 예배인도하고 있다

## 새교회 설립감사예배...담임 원영호 목사

"3년6개월 광야생활 지켜주심에 감사"

새교회(담임 원영호 목사) 설립 감사예배가 지난 8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원영호 목사는 "지난 3년6개월간의 광야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원영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문일명 목사(PCUSA 한미교회 목회위원장)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는 후 박일영 목사(한미교회 부교회장)가 '반석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마16:13-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장진영 집사(ANC 은누리교회)의 특송후 PCUSA한미교회 행정전권위원회(AC)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Jim Stueck 장로(의장), Ken Baker 목사(EP, San Fernando Presbytery), 최경욱 목사(포감사선교회 담임), 정요한 목사, 박효원 목사(남가주교회 수석부회장), 강일준 목사(한양장로교회 담임) 등이 축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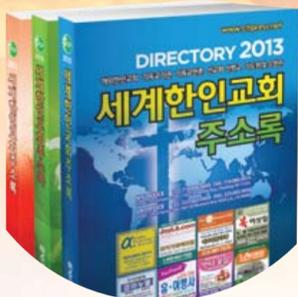
이날 예배는 천방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 2014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마감 임박

리스팅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둘출(표지)	3.5cm x 4.5cm	\$600.00
전면컬러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전면컬러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2,200.00
전면흑백	15.5cm x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15.5cm x 5.8cm	\$350.00
전면 1/4	7.7cm x 11.7cm	
	15.5 x 2.8cm	\$250.00
둘출 Listing	7.7cm x 5.8cm	\$100.00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x 7.5cm	\$200.00

1) 교회(기관)이름	한글:
	영문:
2) 교회(기관)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5) 사택주소	영문:
6)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7) E-mail Add.	
8) Web Add.	
9) 소속교단(명확하게)	

다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3년 10월 12일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구원과 목회자 탈퇴 러시

## “헌금 할당 부담과 교리 허구성 깨달아”

기쁜소식선교회로 활동하는 이단인 속직 구원과에서 탈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 구원과 측은 최근 구원과 탈퇴 교회를 다시 접거하는 과정에서 탈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광양의 한 교회 CCTV에 잡힌 모습에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동원해 교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닫힌 예배당 문을 열었고, 이내 200여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사실 확인 결과 이 장면은 구원과측 신도들이 구원과에서 탈퇴한 교회

를 점거하기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구원과 소속이던 강진성도교회와 광양침례교회가 기쁜소식선교회 측, 구원과를 이탈하면서 비롯됐다. 구원과를 이탈한 두 교회는 각각 지난 4월과 5월에 구원과를 탈퇴했지만, 구원과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급기야 폭력까지 사용해 교회를 강제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구원과 탈퇴자 A씨는 “박옥수 목사와 탈퇴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날 200명이 와서 예배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했다”

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신도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최근 구원과 내 30여 개 교회 목회자들이 동시에 탈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탈퇴자 대부분은 수시로 지교회에 할당하는 헌금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구원과 교리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면서 탈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원과 탈퇴자 A씨는 “국내에 180여 개 지교회가 있는데 구원과 본부에서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티켓을 강매하고, 교인 수 기준으로 헌금을 할당한다”며, “교인들은 빚까지 내 헌금을 채우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사이버종교피해대책연맹(대표 정동섭 교수)은 지난 3일 서울 연동교회 다사랑카페에서 구원과의 불법성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구원과 탈퇴교회 강제 점거 사건에 대한 구원과 측의 해명을 촉구했다.

사이버종교피해대책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옥수 목사가 막가파식 구원과교리로 신도들을 현혹해 전형적인 사이버 종교의 양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원과 신도의 문서 사건 등 박옥수 목사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회를 점거당한 구원과 탈퇴자들은 현재 교회 점거에 나선 150여명의 구원과 신도들을 폭력행위 등에 관한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 총회장에 김동엽·부총회장에 정영택 목사 예장 통합 98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김철모 장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9월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막했다. 9일 예장통합 및 백석, 대신 교단 총회가 시작됐고, 10일에는 예장통합 신총회가 이어진다. 예장통합과 고신 등 일부 교단은 추석연휴가 끝난 23일부터 열린다. 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는 교단을 이끌어야 할 총회장 등 지도부 선출과 주요 교단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신임 부총회장에 정영택 목사(65·경주 제일교회)가 선출됐다. 예장통합총회는 9일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막10:45)’을 주제로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제98회 총회를 개막했다.

나흘간의 회무 일정 중 첫 순서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 정목사는 147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075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선됐다. 공병의 목사(포항동해교회)는 394표를 얻었다. 단독 후보로 나선 김철모 장로(서울 동신교회)는 1157표를 얻으며 장로 부총회장에 올랐다. 부총회장인 김동엽 목사(서울 목민교회)는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총회장직을 승계했다.

기타 총회 임원으로는 서기 최기학(용천교회), 부서기 남택률(전남 노회), 회록서기 박기철(서울강동교회), 회록부서기 이종삼(경남노회) 목사, 회계 이장연(서울강남노회), 부회계 김학란(여·영주노회) 장로가 각각 임명됐다.

신임 총회장인 김 목사는 “교단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섬김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교단의 사회봉사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사 부총회장인 정목사는 “교단의 정체성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위해 불타는 심정으로 총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했고, 장로 부총회장인 김 장로는 “빛진 자의 심정으로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해 통합 총회에서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관심을 끄는 다양한 현의 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및 대구동남, 평안노회 등 7개 노회가 현의안 목회대물림금지법안 제정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총대 20명 이상 노회의 여성목사 1인 및 여성장로 1인 총대 의무 선출안, 핵 및 자살 문제에 대한 교단의 신학·성서·목회적 입장 표명 필요성을 담은 청원안 채택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날 총회에는 방지일, 림인식, 김형태 목사 등 원로 목회자들과 국내외의 교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개회예배 때 드러진 헌금은 종교위안부 피해자와 목회자 유가족, 새터민 가정 등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 예장통합 임원회, 총회사태 관련 핵심관계자 5인 징계 철회키로

예장 통합 임원회가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된 핵심인사 5인의 총대권을 박탈하고 공직을 금지시킨다'는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97회 총회와 관련된 현의안은 상정은 시키지 않기로 해 총회 개혁세력과 마찰이 예상된다. 안병환 부총회장은 8일 “대선중

양교회에서 7일 임원회를 개최하고 ‘실행위원회가 헌법상 징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회 사태와 관련된 5명에 대한 총대권 박탈 및 공직 금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98회 총회를 앞두고 대화합 차원에서 5명에 대한 실행위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고소·고발을 모

두 취하기로 했다. 조만간 황규철 총무에게 지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총회장은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3일 지난번 결정을 번복하는 실행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대신 97회 총회 관련 현의안은 상정하되 총회 화합을 위해 현장에서 기각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들과 교경협 관계자들은 임원회의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교단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인사 5인에 속

한 이상민 목사(대구 서문교회)는 “교단이 화합되기 위해선 총회장과 총무가 반드시 이번 총회에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97회 총회관련 현의안도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경협 관계자도 “개혁 대상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다시 번복하는 등 총극을 벌이고 있다. 총회개혁을 막으려는 꾀수를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기총 이단해제 및 10억 소송에 우려 표명 6개 신학회 교수 172명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발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교회사학회 등 6개 신학회 172명의 신학회 교수들은 7일 서울 신반포교회에서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해제와 10억원 대의 민사소송 제기에 우려의 입장

을 표명했다. 교수들은 “이단문제가 심각해져서 상황에서 한기총의 이단해제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교회와 소속 교단의 바른 신학과 신앙을 깊이 염려하는 전국 25개 신학대학 교수 172명이 6월의

견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한기총은 8월 의견서에 동참한 172명의 교수들은 물론 그들이 소속된 25개 신학대학교 재단과 6개 학회를 대상으로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것은 앞으로 신학교수들이 이단해제 활동에 관한 어떤 비판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법인에 소송 부담을 지어 동향 교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을 이탈

시켜 성명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교회 목회자 신학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의 다락방 이단해제에 대한 반대서명’엔 28개 신학대 201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예장통합신 총회장에 이주형 목사 예장대신 총회장에 최순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한신) 총회는 10일 인천 효성동 강성장교회(이철호 목사)에서 제98회 정기총회를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날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 현 부총회장인 이주형 목사(부천 오정성교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목사·장로 부총회장에는 우종후 목사(구미 황상교회)와 정치도 장로(인천 송원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직전 총회장 이철호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총성하는 종이 되자’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에

는 다시 하나님 양으로 백성들을 모으는 사무엘 시대가 필요하다”며 “선배들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란 죽임 당함도 피하지 않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11일부터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 반대 성명서 채택’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연합 가입 요청’ ‘담임목사 세습 금지’ ‘고신과의 합동추진 중지’ 등 주요 현의안을 논의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

도 이날 경기도 안산 새중앙교회 수양관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 총회장에 최순영(65) 시흥 두란노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기립 박수로 추대된 최 총회장은 “대신의 사명은 ‘2만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이다”라며 “개혁 정신으로 시작한 대신을 성공적인 목회현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3000교회를 넘어 1만교회를 향한 교단성장의 비전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단에서 파송한 58개국 287가정, 519명의 선교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목회자 후생복지와 장애인 복지, 사회 약자를 위한 관심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700여 명의 회원들이 캄보디아, 러시아 등에서 온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헌금했다. 교단속원 사업인 총회회

관 헌당을 통해 대신의 위상을 높이고 총회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총회는 9-10일 서울 개봉동 한영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총회(시42:5)’라는 주제로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대 237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단은 연임됐으며 일부 임원만 새로 선임됐다. 총회장에 한영훈 목사, 부총회장 오세호 목사와 최수만 장로, 서기 김천수, 총무 김명찬 목사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영훈 총회장을 한교연 대표회장 후보로 재추대했으며 교역자 연금제도, 기독교용어 바로 사용하기, 한영부 산목회신학연구원 개교, 지역노회 개간 등이 논의됐다.

# 백석-개혁 교단통합 선포식 예장백석 36회 총회, 초대 총회장 장종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제36회 총회가 9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지난 7월 백석과 예장개혁(총회장 전하라 목사)이 교단 통합을 결정한 이후 갖는 첫 총회다. 두 교단은 앞서 백석총회의 명칭과 헌법, 회차를 따르기로 결의했다.

총회에는 백석 측 총대 940여명과 개혁 측 목회자와 장로 120여명이 참석했다. 백석 총회장 정영근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원하신다”며 “통합을 결의한 만큼 개혁과 백석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를 신뢰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예배 직후 두 교단은 통합선언식을 가졌다. 백석 증경 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개혁 증경 총회장 박영희 목사가 대표로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통합을 선언한

다”고 통합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추대했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통합을 통해 단순히 숫자적 교세 확장만이 아닌 영적으로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통합운동을 전개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회장에는 현 백석 부총회장 이종수 목사와 개혁 부총회장 민홍기 목사가 추대됐다. 이 목사는 한 회기 더 부총회장을 한 뒤, 내년 제37회 총회에서 총회장 후보로 나선다.

사무총장은 기존 백석측 사무총장이 맡고, 개혁측 사무총장은 비상근 공동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는 여성성도 3분의2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는 규정을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70세 이후 노회와 총회 공직 금지안에 대해 논의했다.

#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출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Special 기계)	1회 \$45	10회 \$400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선교 편지

### 우간다

쿠미 프로젝트 8월의 소식을 드립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여호와 처음에 나오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사41:4).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자 여러분들께 평강의 문안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은 더위도 물러가고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이곳 우간다는 여전히 우기에 머물러 있으며, 자주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비교적 시원한 날씨기에 정말 멋진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달에는 슬픈 소식을 먼저 드려야겠습니 다. 쿠미대학교가 시작할 때부터 든든한 후원자이던 동역자였고, 쿠미대학교의 이사이면서 대학의 의원이셨던 게르스옵 일루코 주교(영국성교회)가 9월 1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갑작사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테소부족의 교제지도자 부 족전체의 큰 어른이셨고, 학교의 든든한 후원자이셨는데, 아직도 부족과 우간다와 학교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였 지만 주께서 불러가셨으니 주님의 뜻을 잘 새기면서 남은 자들이 그 분의 뜻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며 특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도부탁을 드린 것처

럼 6월 17일 고등교육위원회와 우간다의사협회의 공동실사 후에 몇 가지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8월 중으로 재점검을 받으면 9월의 고등교육위원회서 의논,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해주었기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정식으로 온 공문에는 서두르지 말고 3개월간 착실히 준비해서 재점검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하고 그래서 기운도 빠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 모든 물자나 일들이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들의 그렇게 편한 수박이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재점검을 받으면 11월이나 12월에 있을 회의에서 통과되면 예정대로 1월에 시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문과교과서 기증을 요청드렸었는데, 9월 한달은 더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난판 말고 최신판이나 직전판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준비 중인 서비기증(서울대 전산원), E-LI-BRARY 서비작업(Linksoft) 등도 원활히 진행되어 곧 도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쿠미대학교가 새로운 분야로 교육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3분야(의학, 농업, 항공계 특히 에너지)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에너지학과가 제일 먼저 이번 학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소수지만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2

명 선별하여 전원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길러보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문한규, 김성현 선교사님과 이번 달부터 합류해서 힘을 보태고 계산 김순기, 강성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아니 어쩌면 아프리카 전체에서 학과의 전교수진이 Ph.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이라 생각하며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애쓰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대해 담당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신선교사님과 강남대 학교에서 파견 나오신 한주혁 선생님이 담당하는 한글강좌도 이번 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어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한국으로 유학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에너지학과와 컴퓨터학과 신입생, 그리고 앞으로 개설될 의대나 농업분야 학과는 의무적으로 듣고, 나머지 학과에서는 원하는 사람들 듣는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사를 파견해주신 강남대학교 윤선일 총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으신 두 분이 잘 담당하실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설될 의대나 농업분야 학과 뿐 아니라 이제 시작한 에너지학과 및 컴퓨터학과에서 강의해 주실 자격있는 강사진을 우간다에서 모시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우선은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www.kmu.ac.ug) 학과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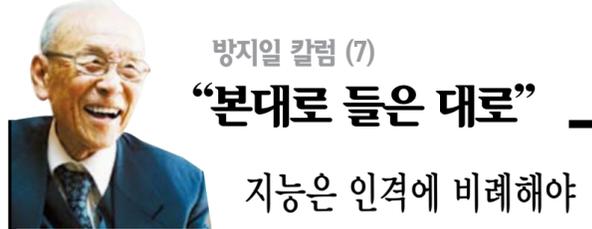
리큐럼과 강의과목 등을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한학기라도 맡아 주시면 좋겠지만 짧게는 2주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저희들이 나머지 시간들을 조절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추천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을 맡아 시작한 지 일년 반이 지난 이번 학기부터 더 이상 신입생이 줄지 않고 늘어나기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와 함께 생기는 또다른 문제인 넉넉한 강의공간과 제반시설 및 교수진의 확보가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도 장학금(한학기 50만원)에 일곱분이 16구좌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쿠미프로젝트 후원은 새로이 한분이 정기후원으로 함께 해주셨고, 두 분이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물질과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심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기도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원현황은 카페 http://cafe.godpeople.com/uganda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보시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박시원 간사님(국제의료협력단:070 4186 6995)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기쁜 마음으로 소식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신영 선교사 드림  
▲이메일: sykim@cnu.ac.kr



## 방지일 칼럼 (7) “본대로 들은 대로”

### 지능은 인격에 비례해야

한 신학도를 만났다. 그의 눈에는 정기가 대단하고 모든 면에 얼마나 명민한지 지능이 높아 보인다. 여러 가지로 대화하는 중에 목회 면에서 대인 관계에 자문을 원한다. 그러기에 피차 선의의 대화를 하게 된 지라 나는 내 지난 경험에 의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준 일이 있다.

그대의 지능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상대에게 지능이 높아 보임을 가능한 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요. 좀 어리석은 듯 하게 내가 상대에게 가르친다는 위치를 갖지 말고 배우려는 위치를 가질 때, 상대는 더욱 내게 친근하게 가까워짐을 느끼지요. 야곱은 가장 귀하게 높은 인격으로 손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득을 본 사람이나 그는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이 될 때에는 그는 불구자가 되었어요. 환도빠의 위골로 절면서 자신의 지능을 완전 포기하고 단단히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것이지요.

때로는 불구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회의에서 내 말이 선다 통한다 느껴질 때,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내게 어떤 비(非), 약점이 있을 때 수치를 느낍니다. 그때는 머리를 숙이게 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직자로서의 귀한 자세라고 보아지 때문이지요.

바울에게서도 이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아프게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 가지가 몹시 괴롭기에 이를 제거하여 주시길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12:9). 바울은 그때서 바로 깨닫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9) 한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 약한 것들이라 했으니 그 지르는 가시뿐 아니라 다른 약점도 바울은 상기한 것으로 봅니다.

나는 여러 선배들 고령하신 지도자들을 모셔도 보았고 또 많은 신앙 동인들과 같이 지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라마다 한 약점 한 비(非), 중국말로 모병(毛病)이란 말인데 작은 티끌만한 흠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모병을 자신이 깨달을 때 교만하지 못하지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심이 그 뜻이라고 봅니다. 나는 주체롭게 그대를 가르침에사가 아니라 함께 우리 격을 갖추는데 이번 대화가 덕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속아 살아야 합니다. 잘 속속수록 지도자로서의 격이 격상한다 할 것입니다. 속는다 함이 여러속한 품위를 나타내게 되나 기여히 속지 않으려고 이룬을 밝힌다거나,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킨다거나, 내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그런 자세는 당시엔 득을 가졌고 손해가 없었지만 뒤에 큰 손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속는다 함은 나는 손해를 보나 상대에게는 득을 얻게 함이요 일이 인격 격과 나의 타날 때 상대는 일지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나를 속였으니 격과 의의 대면에는 알게 되고 마련입니다. 상대는 내 격을 격상하게 되어 그 친숙함이 깊게 되고 내 지도자상을 그가 인정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항상 배우고 살려는 그 자세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배우려 하지 않지요. 물러 하지 않아요. 문은 삶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속담이 있거나 문은 삶은 든든한 삶이 되거든요. 가르치려 말고 스승의 자리 말고 학생의 자리에서 살자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내 스승으로 삼자는 말이기도 하니 이 문고 또 배우는 자는 나날이 진전하는 자가 되지요. 내 상대는 스승의 자리에 격상해 하여 그로 만족하게 그 만족이 내게 돌도 없는 친근한 친구가 되게 하는 철경이거든요. 내 스승이 되게 격상시킨다 해서 그가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리어 나를 지도자로 격상시킴을 보게도 됩니다.

내 지능이 높은 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 지능은 지능의 역할을 못하 더군요. 지능이 부족함을 깨닫고 남의 지능을 빌리려는 그 자세가 지능을 높이는 덕이 된다 하겠어요.

같은 공감으로 주를 섬겼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런 말을 나눈 바이 다.

(1996년, 1권)

## 헝가리

안녕하십니까? 헝가리 9월 선교 보고, 예배당 건축 소식,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살롬!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공화와 은혜, 감사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다페스트 거리의 교회”에서, 저희가 첫 수확한 포도를 나누어주며 기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9).

1)감사  
기도와 사랑, 물질로 선교 후원 해주셔서, 큰 힘이 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와 정성스런 후원, 선교에 대한 기대를 기억하며... 주의 착한 종 되겠습니다. “종이여 내가 이르도 잘하였나 것이 종이지 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의 충성하였으니...”(눅19:17).

2)선교보고  
3) 기도제목

“부다페스트 거리의 교회”는 매주 3일을 예배와 금식, 이발, 구호품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주일: 남부역/월요일: 동부역/화요일: 셀갈만 광장).

“부다페스트 집시 슬럼가 사역”은 매주 2일, 세 곳에서 부녀자들과 어린이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수요일: 일러두쉬 거리 & 킨 거리-8월 21일 개척/ 주일오후: 회쉬 거리).

“올 여름엔 세 교회에서 단기선교 와서 교도소, 양로원, 집시 슬럼가, 거리 사역을 동역하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아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첫 수확한 포도 나누기, 무화과나무와 나비, 예배당 건축 진행과 청사진

“예배당 건축”은 8월 5일 ‘기초공사’를 마무리 했고, 9월 5일부터 2단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기, 가스 설계가 다녔고, 예배당 바닥 철근 깔기, 하수구 공사를 부분적으로 했으며, 다음 주에는 바닥 콘크리트와 벽공사 진행되고, 추위가 닥치기 전에 지붕까지 할 계획입니다. 헝가리식 건축이 더지만 그 다음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

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 감사,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학개2:8-9). “여호와께 새...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학개1:14).

(14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헌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sgiving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lgcusa@yahoo.com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www.youngnak.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www.picoandfairfax.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www.picoandfairfax.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www.asolidrock.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www.scrdm.org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www.brookhurst.org

**대홍성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www.youngkpc.org

**등문교회**  
www.picoandfairfax.com

**등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www.picoandfairfax.com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www.kdms.org

**드림 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www.asolidrock.com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www.newpraisechurch.org

**미주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www.mjpc.org

**미주평인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www.mpcla.org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www.bethel.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www.picoandfairfax.com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www.picoandfairfax.com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www.picoandfairfax.com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www.picoandfairfax.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www.picoandfairfax.com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www.irvinechurch.com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www.picoandfairfax.com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www.picoandfairfax.com

**은혜안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i.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www.gpc.org

**창 대 교회**  
담임목사: 이준준  
www.gpc.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stonetv.com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www.torancecpc.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www.chpress.net



# 선교 펴기

## 필리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바라며--

무더운 여름의 소나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합니다.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혼의 시원함을 누리시는 선교의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과 교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루손섬에 큰 태풍과 홍수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곳 세부는 약간의 강풍만 몇 차례 지나갔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열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사역도 주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꾸준한

성장과 성도들의 성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0일 6명(신학사-2명, 목회학사-1명, 기독교 교육학사-3명)의 졸업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롭게 마치고 특별히 지난 7월 16일에는 2013-14학년도 두란노 신학연구원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이번 학년도에 재학생 3명(전도사 조셉 올로간, 조나단 라요스, 알란 동옥)이 등록하였고 생활고로 학교를 2년간 쉬었던 리차드 바리구아트르가 재입학을 하였으며

며 6명의 신입생(안토니오 사르네호, 조엘 마칼리나, 린돈 말론하오, 칼로 셀론, 제레드 아유, 길버트 고메즈)이 인근 섬과 세부 지방에서 찾아와 입학하였습니다. 신학사 과정을 졸업한 2명의 전도사도 목사안수를 위한 석사과정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두란노 신학연구원은 모두 12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며 아리나 타레



나 전도사님을 새로이 강사로 초빙하여 학교 수업진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의 수고와 후원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올 학년도도 행동함과 평안함 가운데 학생들의 영성 향상과 말씀에 대한 학구적 연구는 물론 신학의 바른 정립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적응과 저희의 교육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길거리 성경공부 사역과 노인들을 위한 해피 웨어링 사역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한 교회의 후원으로 장애우를 위한 러브미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 지체와 신체적 장애로 불편과 수치 속에 있는 17명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간식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여러 동역자님들과 사역의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생인 조셉 올로간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필리핀 기독교회가 한국 성도님의 후원으로 건축

을 시작하였는데 주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핍박과 박해로 건축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 현 위치보다 몇 백 미터 더 올라간 루아 지역으로 이전하여 건축 중이며 교회명도 루아 이 기독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건축 자재도 옮기며 건축에 열심이어서



산비탈의 어려움 중에도 아담한 교회 사택과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고기독교회는 그동안 저희 신학생인 전도사 넬스터 곤잘레스가 산속에 흠어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개척하여 전막을 치고 전도와 예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 학년도부터 목사안수를 위한 석사과정을 공부하여 저희를 도와 신학부 강사로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빠스 기독교회와 팔람반 중

양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린피스 아틀라온교회와 캄론 라이크지 저스교회 및 산 페르난도 기독교회, 소곳 기독교회도 주님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재양성 육성을 통하여 그동안 꾸준한 성경공부와 암송, 분기별로 숙식을 하며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슬과 담배뿐 아니라 마약을 하던 학생들까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류대학을 졸업한 세 명의 장학생들은 선생으로 발령되기도 하고 교회의 사역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일 년 동안 계속되는 변함없는 더운 날씨처럼 사역에서 학생들과 성도들의 영적성장이 염려가 되고 열매가 없는 듯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며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많으며 저희를 통하여 그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의 길을 갑니다. 또한 뒤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격려와 도전을 주시는 동역자님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김재성, 이근순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새로 등록한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환경 적응과 공부를 위하여.
2.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들의 헌신적인 강의를 위하여.
3. 신학교의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으로 민족과 동남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4. 루아이기독교회의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5. 러브미션(장애아) 17명의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6. 김선교사의 어깨 치료와 부부의 건강과 새 힘을 위하여.

## 헝가리

(13면에서 계속)

-"부다페스트 거리의교회"의 노숙자들과 섬김이들 속에서 주의 신실한 종이 많이 나오게 하소서!

-라이(중국인) & 니키(헝가리인) 부부의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거식증을 앓는 니키가 성령체험을 하며 변화되고 건강해지게 하소서!

-"동유럽 한인선교사수련회"에서 '교회개혁'에 대한 포럼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 감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김흥근&서명희 드림.

▲홈페이지: http://hungary.cafe24.com

## 십자말 • Cross Word (10)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가로 푸는 열쇠>

1. 성경을 말할(요1:1).
2. 모사의 아들이며 요나단의 후손이다(대상8:37).
4. 시체를 나르는 제구(삼하3:31).
6. 광산에서 채굴되는 유용한 광물(욥28:3).
7. 숲자리에서 흥을 돋는 직업여성(미1:7).
9. 므낫세 지파의 한 족장이다(대상5:24).
12. 사사 바락의 부친(삿4:6).
14. 미국에서 집 가진 사람은 매주 이것을 갚느라 고생이지요(막6:39).
15.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OOO(수20:7).
17. 이스라엘 부근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왕상21:1).
18. 알고 있지만...의 준 말(창42:8).
20. 꼭 이름을 지정하지 아닐 때 쓰는 대명사(신4:17).
22. 가나안 하위족속 시브온의 자손으로, 예서의 아내(창36:2).
24. 수넵의 주민을 가리킨다(아6:13).
25. 새벽 하늘에 있는 별(욥3:9).

### <세로 푸는 열쇠>

1. 길보아전쟁에서 전사한 사울의 한 아들(삼상14:49).
2. 빗돌(히9:4).
3. 어린 아이(룻4:16).
5.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이요 예후왕조의 제4대 왕(왕하14:23).
6. 버들가지나 갈대로 엮은 바구니(막8:20).
8.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눅21:4).
10. 야만인에 대한 상징으로 이들을 언급하고 있다(골3:11).
11. 단 지파의 성읍인데 후에 레위인에게 양여하였다(수19:44).
12. 드고아의 목자로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목시를 받았다(암1:1).
13. 측백나무과의 상록 교목. 재목으로 용도가 다양(나2:3).
16. 신약시대에 사용되었던 은화(마20:2).
19. 룻의 시어머니(룻1:2).
20. 레위자손 엘가나의 아들(대상6:25).
21. 점을 치는 술법(레19:26).
23. 서로 이별함(미1:14).

### 십자말 정답

예	수	사	대	유	사	나	베
베	수	나	나	나	나	나	나
미	유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S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매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국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ce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신학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특/별/기고

# 동유럽선교사대회를 참석하고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 1. 동유럽에 찾아오고 있는 선교적 도전과 기회

잠시 한숨을 돌리는 여름 사역 가운데 동유럽 비엔나에서 열리는 동유럽 선교사대회에 강사로 섬기고 있다. 음악과 미술,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펼쳐지는 유럽이지만 그 풍요한 유산의 뒤에는 많은 문제와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사회 곳곳에 가득 넘쳐나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국 교회는 동유럽 선교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때 동유럽 단기선교를 참전한 후 장기 선교사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동유럽 공산권 선교에 드리게 된 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분들이 중심이 되어 유럽선교의 1세대로 동유럽 선교의 주춧돌을 놓고 있다.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대회에는 200여 동유럽 선교사 가정들이 모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 있다. 나 자신도 이 대회의 강사로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의 처한 선교적인 현실을 경청하며 새로운 깨달음과 각성이 찾아 왔다. 동 유럽은 2차 세계대전 후 열강의 분할 정책으로 인해 구소련이 이들 나라를 통치하며 온갖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주었다. 소련은 비밀경찰을 동원하고 반대자들에게 대한 조직적인 위협과 감시 등을 통해 철의 장막을 형성해 나갔다. 공산주의의 통치기간 중 동유럽의 교회들은 공산당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교인들끼리 서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감시 정책을 사용하였다. 서로가 서로를 비밀경찰에 고발할지 모른다는 소문을 만들고 그로 인해 불신감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통치 기간 동안 비밀경찰의 감시와 압박 가운데 헌신된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동유럽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 루마니아에서는 '주님의 군대운동'이라는 복음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 공산주의 통치하에 도덕적으로 이완된 루마니아 사람들을 각성시켜 나갔다. 요셉 트리파라는 전도자는 루마니아에 창립된 영적 어둠 가운데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운동, 복음운동을 모든 사재를 바쳐 헌신하게 되었다. 이 결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줄 주점들이 기도모임의 장소로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었다고 한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개신교의 선교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정교회나 가톨릭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고 선교사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지도자들의 부패와 갈등 속에서 교회의 바른 역할이



실종되고 있다. 나아가서 사회개혁이 느리고 백성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유럽 선교는 동유럽 교인들을 깨우치고 각성케 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교를 놓아야 하는 사명도 안고 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무신론적인 공산이념이 빠져 나간 그 빈 공허한 마음을 기독교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모색할 시점이다. 또한 동유럽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이미 체험한 지난 날 선교적인 축복과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전수한다면 역동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동유럽 선교네트워크 모색되어 미국 이민교회의 사역적인 지원들을 받게 된다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동유럽에 동터오게 될 것이다.

이번에 110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구김살 없는 밝은 모습으로 본 대회에 같이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고 저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느꼈는지 모른다. 저들이야말로 동유럽 선교의 미래의 숨겨진 자원들이기 때문이다. 유창한 저들의 언어와 문화로 인해 전문 선교사로 세워질 가능성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무신론주의와 물질주의에 집착했던 공산주의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을 맺었다. 이제는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동유럽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다. 이들은 화려한 문화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빈 공허한 마음으로 복음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있

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도우라' 라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이 동유럽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의 동원자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광야 같은 어려움의 상황에서 헌신하는 동유럽 주님의 선교사들에게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게 된다!

## 2. 동유럽 선교대회에서 만난 선교사들

사람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만남을 통해 인연이 맺어집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만남이라는 양끝의 날개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동유럽 선교사대회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만나 교제하며 은혜를 받았습시다.

동유럽은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개신교의 선교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정교회나 가톨릭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동유럽 선교사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지도자들의 부패와 갈등 속에서 교회의 바른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또 내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난 코소보, 그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난 우크라이나, 그로 인해 셀 수도 없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애아들이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피폭의 위험 가운데 묵묵히 섬기는 그런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알바니아, 그곳에서 모슬렘 의료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조영, 홍성희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 선교사 가정은 알바니아에서 선교하는 의료선교사 가정입니다. 최조영 선교사는 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각성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복음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진학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바쳐

의과대학에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공부합니다. 그리고 내과의사가 됩니다. 마침내 선교훈련을 받은 후 아내와 함께 알바니아라는 공산권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모슬렘 빈민들을 위해 파송됩니다. 최조영 선교사는 일주일에 두 번은 병원에서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아내와 함께 배낭을 메고 가난한 모슬렘 가정들을 직접 발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그 가정들의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일종의 순회 전도자 형태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의술 앞에 거의 모든 모슬렘 가정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선교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수용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알바니아는 재활의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최 선교사는 이미 미국으로 연구학자로 들어가 재활의를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의사면허도 취득했습니다. 이제 미국 의과대학에 재학 인턴으로 공부하고자 청원서를 보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가난한 모슬렘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선교사 가정, 그들은 진정 복음에 눈을 뜬 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가정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에 충실한 나머지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드리셨습니다. 복음에 눈을 뜬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분이 걸어가는 그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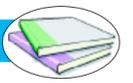
모슬렘의 발흥 등으로 유럽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선교사대회에서 선교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럽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은 다시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게 요청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밤 집회 후 저는 일일이 동유럽 나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루마니아, 알바니아, 폴란드, 헝가리, 코소보,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한 나라 한 나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특히 120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구김살 없는 밝은 모습으로 본 대회에 같이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고 저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 MK 자녀들은 다 선교지에서 아무런 마땅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한국아이들도 없는 외로움에 살아갑니다. 주일학교도 부재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년 동안 이선교사 대회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면 친구가 되고, 같이 뛰고 깊이 교제하고 서로 영적인 우정을 나눕니다.

지금도 그들의 얼굴과 나는 대화들이 기억됩니다. 선교사자녀들의 해맑은 미소들이 떠오릅니다. 동유럽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열정, 오래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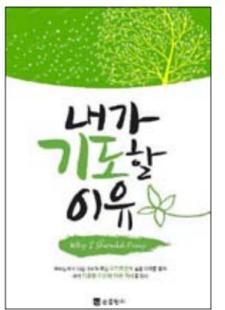
## 새 책 소개



# “내가 기도할 이유”

저자 김석원 목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깊은 이해를 통해 기도할 이유와 바른 자세를 찾는 "내가 기도할 이유"가 출간됐다. 저자 김석원 목사(올랜드 총현교회 담임)는 바른 기도신학 정립을 위해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서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 전반에 관한 신학적이며 실용적인 저작"이라고 전 총신대학장 김희보 목사는 추천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단순한 해설이 아닌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우리 신양생활에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가를 추적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저자 김석원 목사는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이해 통해 기도할 이유와 바른 자세 찾기

신학자들의 주기도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동의를 하면서 다뤘다며 "하나님 말씀 전체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하기에 유익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행식 즉 주기도문은 특별한 기도의 규칙"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내용은 1. 주기도문의 서문과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2. 첫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3. 둘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 4.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5. 넷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6. 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7. 여섯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8.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 부록: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에 글로벌기도학교를 소개했다.

김석원 목사는 부산고신대와 총신대원을 졸업하고 1981년 도미, 헤리티지칼리지(교육학 석박사), 루터라이신신학교(목회학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목회학박사과정 이수)를 졸업했다. 현재 CCC국제본부 신대원 교수 및 한국부 책임자로 RCA한인교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본지 간증문 공모에서 수상한 "1달러의 기적"과 "기도의 신학(주기도문강해)", 번역서 "부부위기관리"(벨브라이트 박사), "전도를 위한 조직"(레리 루이스) 등이 있다.

▲ 책 구입 및 연락처: cccj2k@hotmail.com (유원정 기자)

Since 1999  
**HYM**  
남가주청년연합회  
www.hym.cc



# LIVING Sacrifices

거룩한 산제사



HYM : T) 714. 393. 5135(Douglas Kim 대표), 323. 459. 9832( 전정하 목사) / hym21@hotmail.com  
남가주동신교회 T) 714.680.9556 /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 www.dongshinchurch.com

# 제29회 HYM청년연합집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  
[로마서 12장 1-2절]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 1 - 2]

일시 : 2013년 9월 21일(토), 22일(주일) 오후 7시  
장소 : 남가주 동신교회  
강사 : 서 석훈 목사 (Atlanta 연합 장로 교회 청년부 담당)  
후원 : OC 교회협의회

